

# 성경의 구원

Salvation Sermon



Preaching of the Cross Series

# 성경의 구원

## Salvation Sermon

James W. Knox 원저

이우진 편역



도서출판  
진리의 성경

# Salvation Sermon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2014 by The Scripture of Truth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 성경의 구원

원 저 자 | James W. Knox

편 역 자 | 이우진

펴 낸 이 | 이우진

디자인·편집 | 김화영

펴 낸 곳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초판발행 | 2014. 9. 5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5-4 지하

전 화 | 010-2322-1611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bbckjb>

(이 책의 PDF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ISBN 97889-959341-3-5

■ 정가 12,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번역자 서문 .....	8
1. 간음하다 잡힌 여인 .....	11
2.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	30
3. 유월절 .....	53
4. 늦 밤 .....	72
5.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	93
6. 구원의 길 .....	118
7. 구원의 증거 .....	137
8. 단순한 복음 .....	156
9. 에티오피아 내시 .....	176
10. 예수님의 찢긴 몸 .....	198
11. 세바의 여왕 .....	217
12. 창녀 라합 .....	242
13. 혼인잔치로 초대합니다 .....	263
14. 죽어가는 강도 .....	282
15. 도피 도시 .....	304
16. 큰 흰 왕좌 심판 .....	323
부록1: 가장 중요한 질문 .....	345
부록2: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	359



But I will shew thee that  
which is noted in the scripture of truth...  
(Daniel 10:21a)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다니엘서 10:21a)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 Christ Jesus Publications.

## 번역자 서문

구원에 대해 종교와 성경은 서로 다르게 가르칩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고, 성경은 믿음과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이 매우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후 2:4).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쉬운 겁니다. 누구든 원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분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불행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맹목적인 종교생활을 하며 귀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행 16:30-31)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이 책은 체계적인 조직신학의 구원론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미국플로리다 주의 딜랜드 시에 있는 성경침례교회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임스 닉스 목사가 성경의 구원에 관해 16번에 걸쳐 설교한 것을 역어서 한국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원저자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고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편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더욱 정확히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독자가 있다면 이 책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독자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자와 역자와 독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4년 8월 이우진 목사



# 1.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하나님의 말씀 중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는 장입니다. 이 장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다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1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요 8:1-4)

이 구절들을 보면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

에 대해 아무것도 염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염려해 주셨으며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녀의 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을 압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종교는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와 자유 없이 사람을 계속 죄 아래 붙잡아 둡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을 사로잡아 두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 사역을 전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다른 종교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5절) “이러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6절) 예수님께서서는 그

들을 무시하셨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여인을 데려온 목적은 그녀의 영적 상태를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훈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여인을 징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데려온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곤경에 빠뜨려서 고소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이 여자를 데려온 의도는 예수님과 모세의 율법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7절)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잠시 셋길로 빠지겠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놀랍기도 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인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큰 흰 왕좌 심판석에 앉아 계신 분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 25:41)고 하시는 말씀을 모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마 7:1)는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요 3:19)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려고 하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는 구절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마귀에게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성경공부를 한 적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을 알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들고는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8-11절)

요한복음 8:1-11은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법을 집행해 보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두 세 사람의 일치된 증언을 요구합니다. 즉 율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두 세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신 17:6)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신 19:15)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즉, 이 재판을 위한 증인이 두 세 명은커녕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 없이 이 여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자를 재판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간음을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간음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여자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셨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번도 간음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간음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간음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간음을 정당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번도 이 여자에게 간음을 해도 괜찮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하게 간음은 죄이며 그녀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다시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간음을 할 때 현장에 있던 증인은 아니었으며 현장에 있던 증인들은 모두 양심에 가책을 받고 떠나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 사건 자체를 기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기각하셨다고 해서 간음을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분명하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각하신 것이지 간

음이 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분명히 죄고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먼저 다시 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4-5절)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무엇을 명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요한복음 8장의 사건, 즉 간음하다 잡힌 남자와 여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신 22:22)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 법률이나 정부나 문화나 대중가수나 TV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젊은 여자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23-24절)

다시 요한복음 8장의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



리새인들은 그녀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누가 율법을 범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남자도 율법을 범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명백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범한 사람은 그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간음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으면 남자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간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법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에 해당하는 법률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 5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상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요한복음 8장에 담긴 진리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고 그에게 범법을 행하며 어떤 남자가 그녀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웠는데 그 일이 그녀의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져서 그녀가 더러워졌으나 그녀를 대적하는 증인도 없고 그녀가 그런 종류의 일로 붙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졌거나 혹은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지지 아니한 경우 그때에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 음식 일

에바의 십분의 일을 그녀의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질투의 헌물이요,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불뿔을 기억나게 하는 헌물이니라.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속에 넣고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를 드러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질투의 헌물을 그녀의 두 손에 두고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녀에게 명하여 맹세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이르기를, 어떤 남자도 너와 함께 누운 적이 없고 또 네가 네 남편이 아닌 다른 자와 더불어 부정한 데로 탈선하지 아니하였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이 쓴 물에서 네가 자유로운 몸이 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이 아닌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네 남편이 아닌 다른 어떤 자와 함께 누워 네 몸을 더럽혔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명하여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주께서 네 넓적다리를 썩게 하고 네 배를 붓게 하사 너를 네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일으키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썩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할 지니라.”(민 5:11-22)

민수기 본문은 간음했다고 의심을 받지만 현장에 남자는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사건에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간음한 여자는 있지만 간음한 남자는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함정을 파지만 항상 자신들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덫을 놓지만 그 덫에 걸리는 것은 언제나 자신들이었습니다.

간음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자는 있는데 상간남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 여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 여자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와 주님께서 그녀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남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자만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던져 놓고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 여자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6절과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속에 넣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관해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땅에 무엇이라고 쓰셨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무엇인가를 쓰셨다면 그것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사건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한 여인에 대해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이런 사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있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서는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거룩한 물이 담긴 질그릇에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글을 쓰시며 만지고 계신 것이 바로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구절을 쓰셨다면 아마 민수기 5:17을 쓰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이라는 힌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자와 함께 붙잡아 온 것이 아니라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여자만 잡아 온 것이라면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아 지금 주님께서 만지작거리고 계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질그릇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티끌과 물을 섞어서 여자가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사건에 대해 해결 방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율법의 저자이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한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꺾고 계신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힌트를 눈치채지 못하고 예수님께 재차 물으니 주님께서는 일어서시어 다시 말씀하시고 몸을 굽혀 다시 한 번 땅에 쓰시면서 그들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요 8:7-8).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과 호세아 2장과 이사야서 54장을 보면 이스라엘 국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인 질그릇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몸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26에서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물과 같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시며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질그릇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민수기 5장을 기억하십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것으로 의심받는 여인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녀가 죄를 지은 채로 더러운 가운데 질그릇 안에 담긴 티끌과 섞인 거룩한 물을 마시면 그녀의 내부에 있던 더러움이 외부로 표출되어 그녀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불의한 아내였던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자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시며 질그릇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 자리를 떠났는지 아십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문제보다 영적 간음을 범한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찔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안에 들어

가 땅의 티끌과 섞인 거룩한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들의 내면에 있던 영적 더러움이 외면으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오히려 당신이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탓하려다가는,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께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의 여자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예표가 있습니다. 다시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서 있더라.”(7-9절)

불행하게도 지금도 진리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만 진리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면서도 자리를 피해버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나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지 않고 그저 자리를 피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나쁜 여자였을까요? 네, 분명히 그녀는 나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간음을 범했을까요? 네, 그녀는 분명히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

녀는 죄인이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녀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3:23).

그런데 8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여자를 위해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그녀를 고소하던 자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여자가 범한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와 동일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분명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마귀가 고소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오셔서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영광의 자리를 떠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옥에 가서서 모든 죄를 그곳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겟세마네로 가셨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갈보리로 가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

신과 저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고소하던 것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저를 고소할 때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말없이 못 박히셨던 그 구멍 난 손을 마귀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고 잠잠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녀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왜 그녀를 정죄하던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심으로 그녀를 고소하던 자들을 잠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자 중에 구원받은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을 고소하던 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로 인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셨고 겿세마네로 가셨고 갈보리로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지옥으로 가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 주신 이 모든 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원수는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고 잠잠해졌습니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2:32).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물론 주님께서서는 저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지옥의 어떤 권세도, 전 우주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모든 죄인들과, 마귀에게 종 노릇하고 고소당하는 모든 죄인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러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요 10:17-18)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전통이나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지도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스승도 아니고 4대 성인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고 온유한 갈릴리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1:25).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행 1:1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셨고 승리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증보하시기 위해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자신을 고소하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굽히시고 일어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일어서실 때 자신을 고소하던 모든 사람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간음을 한 적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누군가를 죽이거나 저주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 적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받아들이면 당신을 고소하던 자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의 정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정죄할 것입니다. 마귀도 언제든지 저에게로 와서 저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부활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1절에서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시인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11절에서는 이미 그녀를 고소하던 자들이 모두 사라진 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무도 저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로마서 8:1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목사나 책이나 전도지나 아니면 성령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당신을 정죄했을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사실과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 당신은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이라고 부르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을 통해 당신을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아무런 정죄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해 주신 일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저는 해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할까 두려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20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알았다면, 그녀는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찢림을 받고도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자리만 피해버리는 것보다, 이 여자처럼 용서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고백한 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무도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 받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 2.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20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문밖을 이해하기 위해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계 3:14)

계시록 2-3장에는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앞의 여섯 교회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2:1) 혹은 “사데에 있는 교회”(3:1)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속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신들이 만든 헌법과 규정과 규칙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투표로 선출합니다. 목사도 투표로 뽑습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을 선출할 때 후보등록을 받고 공약을 들어보고 투표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법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교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어떤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투표로 선출된 목사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사가 있는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나마 자신이 원하는 목사가 하는 설교마저도 제대로 듣고 실행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성경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자신들이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교회이고 자신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 1.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계십니다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당신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서 계시며 문을 두드리시면서 들어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은 술집의 문이 아닙니다. 대학교 강의실의 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문은 교회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교회에나 가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은 자신은 세례를 받았다거나 모태신앙이라 하거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자신이 받은 세례나 성례나 성사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자신이 침례를 받은 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초청을 할 때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거



나 특정한 죄를 그만두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지옥에서 불타는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진리입니다. 어떤 목사나 신부나 랍비나 설교자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틀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의 생각이 좁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7:13-14). 저의 생각이 너무 편협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6).

당신은 예수님께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그분이 인류의 훌륭한 스승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서 좋은 분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그분은 그저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서 훌륭한 종교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서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셨다면 그분은 좋은 종교지도자가 아니라 형편없는 종교지도자일 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선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스승이나 종교지도자도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그분은 자아중심적인 마귀에게 미혹된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었다면 그분이 가르치신 것, 즉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훌륭한 분이었다면 그분은 정직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역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신조를 외우거나 성경의 교리를 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에 가입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이 바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상관없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 있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교회 밖에

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과거 수백 년 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 시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혼율과 자살률과 범죄율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살인 사건도 그 어느 때보다 많고 빛을 갓지 않는 경우도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거짓말을 하고 더 벌거벗었으며 더 많은 죄에 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죄가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를 저지르거나 거짓말을 엄청 잘하거나 뻔뻔한 사람들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마치 그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 크게 상관하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자신의 기준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대속하시거나 다시 오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것을 결정합니다. 자신들이 믿을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제멋대로 믿는 동안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사람들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강단에서 선포하면 이단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수의 교회들은,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고 선포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외에는 그 무엇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당신에게 와 닿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면 우리나라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 2.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서 계십니다

다시 계시록 3:20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봐야 합니다. 문에 서서 두드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깨어라” 라는 잡지를 팔려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문에 서서 두드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무엇인가를 팔아먹으려는 잡상인이 아닙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문에 서서 두드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잡상인이 아니라 주 중의 주이시며 손에 못 자국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문에 서서 두드리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이 문 안이 아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까요? 왜 세상의 구원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닫혀있는 것일까요? 이것보다 더 희한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술은 받아들이면서 구원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담배는 받아들이면서 구원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마약은 받아들이면서 구원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종교는 받아들이면서 구원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도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살인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마약판매상도 아니고 도둑도 아닙니다. 누가 문 밖에 서 계신지 아십니까? 순결하고 점이 없고 거룩하시고 무해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문 밖에 서 계신 겁니다. 살인자와 창녀와 주정뱅이와 간음하는 사람들은 거실로 받아들여서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면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TV를 통해 온갖 사악한 자들을 안방으로 초대하고 아이들이 그들을 보고 배우게

만들면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안에 들어와 있고 누가 밖에 서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룩하신 분이 밖에 서 계십니까? 집 안에는 가정을 망치는 게 들어와 있는데 문 밖에는 가정을 바르게 세워줄 분이 서 계십니다. 집 안에는 인생을 망치는 게 들어와 있는데 문밖에는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실 분이 서 계십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엉망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라, 내가 문에 서 있었노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어느 날 문에 서 있을 것이니”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주일 오전 11시 55분부터 59분 사이에 문에 서 있을 것이니”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항상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들어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신을 환영하고 문을 열면 들어오려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지난 세월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매여 종 노릇하며 살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은 노래를 듣고 유흥을 즐기고 좋다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느라 문 밖에 서 계신 분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문 밖에 서 계신 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문 밖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들어가기를 원하시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문에 서 계신 겁니다.

### 3. 예수님께서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집 안에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던 일이 있다면 방해가 될 것입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밖에 있는지 모르므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드리는 소리로 인해 누군가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피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성경을 멀리 하려는지 아십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하던 일에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책을 읽으려고 해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거리설교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누군가 성경대로 사는 걸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신경 쓰이고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인 친구를 멀리해도 당신이 한 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로부터 도망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침례나 세례를 받는다 해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물 뿌리든, 사람을 물속에 담그든, 그러한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따르다 해도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고 믿느냐는 질문을 들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나 성경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8:18).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이라도 부수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에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서



서 제자들의 한 가운데 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문도 통과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롬과 어거스틴이 만들고 칼빈이 유행시킨 예정론과는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강제로 구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주님께서서는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에 서서 두드리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안으로 들어오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밖에 서 계시도록 할 것인지는 안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계시록 3:20을 모티브로 한, 당신도 아마 보신 적이 있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문에 고리나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의도적으로 문에 고리를 그려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화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제대로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연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문을 연 사람과 함께 만찬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구원받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문을 여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 4.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문을 열어야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분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인해 양심이 반응을 하고 찔림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기 때문입니다(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복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

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세상으로 가셔서 구원 받지 못한 죄인들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서 문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 거짓 종교가 복음을 전하지만 않는다면 수백 만개의 교회가 세워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장 동료와 이웃과 친구에게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바쁘게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문을 두드리 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 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와 책임은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 다.

## 5.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 와 함께 먹으리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금길이 아닙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저택이 아닙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 밖에서 기 다리고 있는 것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보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문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문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상급이나 보물이나 재물이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합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하늘나라에 있는 저택에 관심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새예루살렘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도 아니고 황금길이나 저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문을 여는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황금길로 된 도시에 두지 않으시고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늘에 있는 저택이 아니라 예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금과 은과 저택과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인간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진주로 된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질리도록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황금으로 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집안 가득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보석으로 된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집안을 보석을 도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도 어떠한 기쁨이나 만족이나 평안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에 서서 두드리시며 제안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주겠다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하기 전에는 당신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룬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문을 열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만찬을 하기 전에는 그 무엇으로도 당신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양 때문에 그곳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새예루살렘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된 물건이 가득한 수백만 달러짜리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의미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달

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바로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나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문 밖에 그대로 세워둔 사람이 즐비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선물이나 축복이나 병 고침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득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마귀가 병을 고쳐주고 이 세상에서 복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바로 마귀에게로 가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분은 병 고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질적인 복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6.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입니다. 단체로 결정을 내리거나 누군가와 함께 공동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희들이 단체로 문을 열면 내가 들

어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족이 결정하여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와 네 친구가 문을 열기로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안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것을 친구와 함께 하기로 한다면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했을 겁니다. 만일 제가 가족과 함께 그분을 믿기로 했다면 예수님은 아직도 문 밖에 서 계셨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에게 개인적으로 제안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저에게로 들어오게 하셨을 때 그분은 들어오셔서 저와 교제를 나눠 주셨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웃이나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당신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 7.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려고 하십니다

계시록 3:20의 장면을 생각하면 참 흥미롭습니다. 문의 바깥 쪽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수하고 죄가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계획하신 적도 없고 생각하신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의 안 쪽에는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고 비참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하고 자만하며 악한 욕망으로 가득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

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나기를 더 갈망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중 누가 더 만나보기를 원해야 합니까? 아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위대한 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 더러운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무죄하신 분이 죄 많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 종교와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받아줄 거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고 받아들여 줄 거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하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들어오셔서 당신을 선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노력을 한다는 것일까요? 세례를 받고 성례를 받고 염주를 돌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십일조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자신은 침례교회에 다니고 영접기도를 했고 지



역교회의 회원이며 성가대를 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머리모양과 옷차림이 바르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모셔 들여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들 쪽에만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은 다른 누군가가 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안에서 열어야만 열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함을 가지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들어오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르게 만드는 차이점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대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감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은 양심에 가책을 받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진리에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은 깨끗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에게 절대로 문을 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당신의 인생은 망가질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구원받은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갈등을 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은 아담의 죄를 덮어주고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들어와서 구원해 주고 용서해주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문을 열지 말고 숨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마귀는 문을 열지 말고 숨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옥에 보내시려고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이미 지옥에 다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당신의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자원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들어갑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죽게 됩니다. 독자 중 그 누구도 오늘 밤에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사고를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장마비를 계획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 사람들은 사고로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죽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부르고 이 세상에서와 영원에서 당신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늙어서나 죽기 전에 문을 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즉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왜 주저하십니까? 죽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을 수 있는데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문 앞에 계시는데 왜 문을 열지 않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문을 열지 않으신 분은 즉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 앞에 백만장자가 서 있다면 당신은 문을 열 겁니다. 당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은 문을 열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은 문을 열 겁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문을 열 필요

는 없다고 당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셔서 당신의 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 3. 유월절

히브리서 11장과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히 11:28)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십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양에 대하여 집안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양은 흠이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

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십사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 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출 12:1-14)

12절에 보시면 이집트를 지나며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죽음의 천사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받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단어가 바로 피와 어린양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피를 제거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죽은 종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양을 제거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피와 어린양을 빼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가 됩니다.

아담과 아벨과 유월절과 이스라엘의 희생제사와 가나안 정복과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지나 계시록에서 왕좌에 앉아계신, 죽임 당하셨던 어린양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어린양과 그분의 피가 그 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순결한 양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양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훌륭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좋은 본을 남겨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어린양의 피를 제거하면 기독교는 몰몬교나 불교나 이슬람과 같은 종교가 됩니다. 성경에서 어린양의 피를 제거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대로 살아도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세상의 죄를 제거했습니다.

## 1. 모든 사람은 각자 어린양에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그렇지 못했든, 나이가 많은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린양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every man) 어린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어린양을 취해야 하는데 한 집에 한 마리씩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각 사람(every man)”이

즉 “모든 남자”가 어린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가정을 위해 어린양을 잡아야 하는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집의 가장이라면 당신 가족이 어린양을 알아야 할 책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조카, 가정부 등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어린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어린양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린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까? 당신이 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린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까? 당신은 어린양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이 어린양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개인이 어린양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즉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면 자기 아내 얘기를 하거나 남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다거나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어린양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어린양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2. 당신의 어린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어린양은 흠이 없고...” 당신의 어린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점도 없어야 합니다.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합니다. 더러움이나 불순함도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죄도 지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당신의 어린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노아도 당신의 어린양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나 바울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나 모든 교황들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하메드나 석가모니나 공자도 당신의 어린양이 될 수 없습니다.

대속할 어린양이 흠이 없어야 한다면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린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롬 3:23).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어린양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혈관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릅니다. 그분 안에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없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흠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최악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죄 중에 자신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 잘못된 호흡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하나님의 어린양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

님께 순종하셨고 단 한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셨던 것입니다.

### 3. 예수님은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달 십사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당신이 복음서를 공부해 보시면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녁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이스라엘 민족은 십자가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모였고 헤롯의 궁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우리에게는 강도인 바라바를 주고 저 어린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오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오후에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까.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녁때가 되어 자신의 영은 아버지께 맡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서 저녁에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적용할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양이었기 때문입니다.

### 4. 어린양의 피를 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면 기둥과 위의 문기둥에 뿌리고” 그들은 반드시 어린양의 피를 취해야 했습니다. 단지 어린양을 잡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양을 잡았다

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양의 피를 취해 그것을 문 기둥에 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을 죽이고 피는 그대로 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을 잡거든 그 피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취하여 그것을 양옆 기둥 위와 문 기둥에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양의 피를 취해 적절한 곳에 적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양의 피를 취했다 해도 그것을 옷장에 넣어두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양의 피를 부엌 서랍에 넣어두었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양과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런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양과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린양의 피를 취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문 기둥에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린양을 믿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롬 10:9-10).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양의 피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뿌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즉 문 기둥에 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 5. 어린양의 고기(살)를 먹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요 6:53-56).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양의 피를 취해서 밖에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양을 먹어 그분의 살을 안에 소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골 1:27).

성경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문기둥, 즉 외부에 뿌린 어린양의 피는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양의 고기를 먹는 것, 즉 내부로 소화시킨 어린양의 고기는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소유했다는 사실로 인해 만족하지 않으셨습니까? 참된 안전을 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 죽음이 닥쳐도 결국 아무런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 평안을 누리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어린양의 고기를 먹어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 6. 어린양에 관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린양에 관

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흠 없는 어린양이 있어야 하고, 그 어린양을 잡아야 하고, 그 어린양의 피를 뿌려야 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집트에 찾아오셨을 때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양에 관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하며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야 합니다. 단지 어린양에 대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밤 당신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어린양의 피에 관해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양의 피를 적용해야 합니다.

## 7. 어린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린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어린양을 잡지는 않고 그냥 보관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어린양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어린양은 본 적이 없습니다. 흠이 없고 점도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어린양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죽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양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양의 순수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린양의 깨끗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린양의 순결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린양의 순결함이나 깨끗함이나 순수함이나 아름다움은 아무리 오랫동안 감상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양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어린양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어린양이 흘린 피는 반드시 문기둥에 뿌려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어린양의 아름다움이나 그분의 고귀한 생애나 깨끗함이나 순결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본받아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외에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행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수하심과 정결하심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

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 8. 다른 사람의 어린양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피해야 할 세 번째 오류는 다른 사람의 어린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린양은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어린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신 관계를 맺어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어린양을 먹어야 합니다. 스스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린양의 피를 당신 자신이 직접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집트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보내신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집트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저를 죽이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저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 회원 가입한 사람을 찾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순결한 어린양의 피를 보러 오셨습니다. 다음 집으로 가니 또 다른 사람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 저를 죽이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 침례증서입니다.” 이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침례나 세례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침례를 받았는지 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린양의 피를 보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어린양의 피를 보러 오셨습니다.

어린양의 피가 없었다면 그 유월절 밤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 9. 어린양의 피를 적용하는 것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넷째, 우리가 피해야 할 네 번째 오류는 미루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는 어린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양을 죽였습니다. 어린양의 피를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양의 피를 문기둥에 뿌리지는 않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양의 피를 문기둥에 뿌리지는 해야 할 거야. 하지만 좀 나중에 해도 되겠지.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 찾아오시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지만 오늘은 아닐 거야. 좀 더 생각해 보고 뿌려도 늦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참되고 대언자들의 증언도 모두 사실일 꺼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나중에 언젠가 문기둥에 뿌리면 되겠지.” 이 사람도 유월절 밤에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도 이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앞으로 구원받게 될지 혹은 그전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둘 중 한 가지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다거나 구원에 아주 가깝게 근접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에 아주 가깝게 근접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거의 구원받은 것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언젠가 구원받게 될지 구원받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 전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 10. 어린양의 피를 신뢰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어린양의 피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양의 피를 신뢰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12-13절) 하나님의 원칙

은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린양의 피를 신뢰한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둘째, 어린양의 피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린양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어린양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될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십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양에 대하여 집안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3-4절)

셋째, 어린양은 가족과 이웃에 수의 따라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나 이웃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화를 내거나 조롱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어린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어린양의 피가 없으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을 걱정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요구하실 때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년 68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죽어서 어디로 가건 전혀 상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밤 당신이 죽으면 과연 몇 명이나 당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상관하겠습니까? 그때에는 내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누가 비웃었던 것이 무슨 상관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양의 피를 믿지 않고 죽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양의 피를 믿지 않고 죽으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떤 대학에 다녔었는지, 어떤 차를 탔었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었고 누구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했었고 존경을 받았었는지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라 어린양의 피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양의 피로 씻김을 받고 구원받았는지입니다.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서는 정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린양의 피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 11.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옛 생활을 떠나야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37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숙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육십만 명이었으며”

당신이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당신은 이집트를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예전의 생활을 뒤로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저는 직업을 바꾸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수였던 사람은 목수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학생은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전에 즐기던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즐기던 쾌락들, 친구들, 방법들,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전의 것들을 모두 뒤로 버려두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그리스도의 풋대를 잡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3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 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35-36절)

이집트를 떠난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옛 생활과 옛 생각을 버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옛 생활과 옛 생각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살 집을 주실 것이고 입을 옷을 주실 것이고 먹을 음식을 주실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면 어떻게 살

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린양의 피를 신뢰한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린양의 피를 무시한 사람들은 멸망했으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옛 생활을 뒤로 남겨두고 새로운 창조물에 걸맞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사는 도시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밤이 되어 그 도시에 도착했고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는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친구는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작에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친구의 인생, 아니 영원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린양의 피가 그 친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하는 것을 미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미루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찾아오셔서 그 친구의 목숨을 가져가버리셨던 겁니다. 그 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버렸을 때에는 어린양의 피를 전해주거나 믿게 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요구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당신의 친구와 이웃과 가족의 목숨을 찾아가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회가 영원히 사라져 버리기 전에 어린양의 피를 취하고 어린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에게도 너무 늦기 전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다.

저는 당신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아셨으면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할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덜 중요한 일을 하느라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에게 어린양의 피를 전해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린양의 피를 전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혼을 요구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린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저는 당신이 어린양을 아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믿을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를 당신의 문기둥에 뿌렸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린양의 피로 둘러싸인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상관 없이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있느냐 하면 지금 지옥에 있는 것만큼이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금 현재 상태는 구원을 받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린양의 피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린양의 피를 이웃과 가족에게 전해주었습니까? 어느 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그들에

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반드시 어린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 4. 뱀

### 1. 사탄은 실제 뱀은 아니지만 간교하게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잠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슈가 된 나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앞에서 마귀는 이브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뱀(serpent)으로 이브 앞에 나타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일반적인 뱀(snake)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을 옛 뱀이요, 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뱀은 사탄을 상징할 뿐이지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 머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일 당신이 얻기 원하는 정보를 성경이 제공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서 교리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탄이 교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의하면 사탄은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고후 11:3)

성경은 계시록에서 이 사탄이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욥기41장과 이사야서 27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일반적인 뱀이 마귀나 사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의 순결한 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양의 피를 문기둥에 뿌림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한밤중에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들이 호르 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

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 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민 21:1-6)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옛 본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옛 사람과 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변화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위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2.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불 뱀이 사람들을 물고 죽였던 이 사건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홍수를 보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 불을 보내셔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두루 돌아다니시며 문기둥에 피를 뿌리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 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 3. 민수기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민수기를 마지막으로 읽으신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점은 민수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회중이 나오고 그 회중을 이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회중과 회중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와 회중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옵니다. 민수기는 영적으로 오늘날 지역교회들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민수기에는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 지역교회의 실행과 관련된 많은 교훈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어린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회중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림을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신이 민수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거기에는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음, 음행, 우상숭배 등 오늘날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완악하고 불평을 잘하고 수근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신약성경의 지역교회를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에 대해 불평하고 찬송에 대해 불평합니다. 심지어 그가 목사라는 이유로 모든 불평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당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사람들의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주신 이러한 예표는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불만으로 가득찬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 뱀으로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중에게 불 뱀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옷을 벗고 춤추며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 뱀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불만으로 가득 차서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살인을 한 적이 없고, 간음을 한 적이 없고 도둑질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것도 죽을 만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왕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린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아,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바른 지역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듣고 싶어하시는 게 과연 무엇 일까요? 아마도 음식에 대한 불평이나 앉는 자리에 대한 불평이나 다른 사람의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불평이나 험담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불 뱀이 득실떨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유일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당신과 저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받은 영적인 복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멋진 옷과 좋은 집과 차와 직장과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과 죄의 완전한 용서와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성경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그 누구보다 더 큰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들은 이전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도 아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어컨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덥다거나 히터가 잘 작동하지 않아 춥다고 불평하지만 지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과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살았던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예 지붕 자체가 없는 집에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붕에서 물이 새서 하나님께 불평했었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가 지붕이 있는 집에 살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문제는 우리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받지 않은 것, 지금까지 살았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받은 적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러한 착각이 모두 완전히 깨질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을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도들도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것 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보다 이러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씩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것처럼 불평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 단 한 사

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벌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흑암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우리의 죄에 따라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매일 아침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족이 모두 충분히 먹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모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였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고작 이집트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를 보면 동일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세상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불평하는 사람들과 천상의 모든 복을 받고도 이 세상의 복을 그리워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날지는

자명합니다.

## 5.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명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과 처해있는 상황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고 현명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불평은 모두 사려져 버릴 것입니다.

제 아이가 저에게 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돌을 주겠습니까? 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전갈을 주겠습니까? 독자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마 7:9-11)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보다 훨씬 더 현명하시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십니



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가 당한 일들이 옳지 않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들이 아이에게 해 주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밥 대신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원하지만 그런 것을 밥 대신 먹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야채와 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단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저는 아이스크림을 원합니다. 과자를 주세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는 만나보다 뛰어난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지도 않으시는군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거나 당신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십니다.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 6.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주께서 불 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6절)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6:23).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 7.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7a절)

“우리가…죄를 지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은 죄

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하면 당신의 형제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큰 죄나 보다 나쁜 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단 하나의 죄라도 지으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약 2:10)

하나님께서서는 작은 죄는 괜찮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에 순위를 매겨서 큰 죄는 처벌하시지만 작은 죄는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른 형제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 8.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 뱀을 쳐다보면 살더라.”(8-9절)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살렸던 것, 즉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건졌던 것은 놋 뱀이 가진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놋 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놋 뱀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놋 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불 뱀에 물린 사람들 사이에서 장대에 못으로 만든 뱀을 달고 그것을 쳐다 보라고 외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아마 먼저 못 뱀을 보고 죽음을 면한 사람이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저 못 뱀을 한번 쳐다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못 뱀을 쳐다보니 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나는 당신처럼 나약하지 않아. 차라리 그냥 못 뱀을 보지 않고 죽을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다른 사람의 간증도 듣지 않아 결국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한 사람 앞으로 가서 못 뱀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못 뱀을 보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것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 저도 제 종교가 있습니다. 제발 당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못 뱀은 당신이나 실컷 보세요. 저에게 당신의 종교를 강요하지는 마세요. 저는 제가 만든 못 뱀이나 볼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도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을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못 뱀을 두고 어떤 논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못 뱀을 보지 않겠다고 어떤 핑계를 댔는지도 모릅니다. 장대에 달린 못 뱀을 보지 않겠다는 이유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못 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못 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

았습니다.

## 9. 구원은 단순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독자 중에는 구원이 왜 그렇게 단순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원이 단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규칙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소. 위원들 중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시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다’ 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투표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딤후 2:4)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 뱀을 보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놋 뱀을 보지 않으면 그대로 죄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놋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병원이나 구급차에 보면 장대에 달린 놋 뱀의 표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 의사들이나 구급대원들은 왜 병원이나 구급차에 그런 표시가 있는지 모를 겁니다. 병원이나 구급차에 생명을 살리는 표시로 장대에 달린 낫 뱀이 그려진 이유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 10.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합니다

여기서 잠시 열왕기하 18장에 나온 흥미로운 사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 내고 모세가 만든 낫 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왕하 18:3-4)

히스기야의 시대는 모세가 낫 뱀을 만든 지 적어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 형상을 경배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동네에 있는 성당에 가서 누가 형상에 입을 맞추고 절을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시며 흠이 없는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인형이나 조각상을 통해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두 개의 나무 기둥으로 만든 나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의

미가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구원한 것은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위에 달려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매달려 있게 하기 위해 나무 십자가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새긴 조각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종교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종교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것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합니다(요 4:24). 당신의 영은 거듭나야 하고 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늦 뱀이 조상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늦 뱀을 ‘느후스탄’이라고 부르며 산산조각 냈습니다. 느후스탄이라는 것은 늦 뱀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번역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느후스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후스탄은 “늦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있는 그대로 부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던 것을 히스기야는 늦 조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집에 마리아의 조각상이나 침례인 요한의 조각상이나 성 프란시스나 성 버나드의 조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

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그것은 돌이나 나무나 흙 조각에 불과하며 거기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불렀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 11. 구원받는 비결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놋 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놋 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불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께 당신 자신을 내어 드린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 12.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놋 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마리아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요 3:14) “같이”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놋 뱀을 단 장대를 들어올렸습니다. 예수님께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은 나무에 매달린 채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입니까? 누가 이 세상으로 죄를 가져 왔습니까. 바로 옛 뱀인 사탄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온 세상에 죄를 가져온 죄의 원흉인 뱀과 같아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시편 22편에서 자신에 대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시 22:6) 온 세상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졌을 때, 겸손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한층 더 겸손히 낮추시어 인간 아래의 존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레요 뱀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벌레가 되시고, 뱀이 되시고, 죄가 되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통해 저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 13.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불 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다른 핑계나 이유나 변명은 상관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그 놋 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만일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하면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견대로 하면 당신은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놋 뱀을 바라보지 않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의견이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온 세상보다 소중한 당신의 혼을 제 의견이나 생각에 맡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혼을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15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have)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즉시 얻는다(have)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 순간 즉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구원받기 위해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있던 죽음의 독이 모두 해독되었습니다. 사망의 쏘는 것이 완전히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치유되었고 해독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저에게 해 주신 일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당신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원받은 사람과 종교인이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하늘나라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코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만일 제가 지옥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과 놀라움과 기쁨도 모두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가 되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하늘나라는 더 이상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에 관해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건 그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든 저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장대에 달린 놋 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게 된 것처럼, 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

으로 나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저의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저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방법을 통해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 5.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 1. 한 사람이 바른 질문을 바른 분께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막 10:17) 여기서 보면 한 남자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묻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올바른 분에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영접기도를 따라 하거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18절) 예수님께서 하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질문한 사람에게 그가 지금 누구와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아는지 확인하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처녀에게서 출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셔서, 다시 오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하나님께 해당하는 칭호를 자신에게 붙였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온 사람이 고백해야 하는 정답은 “주님께서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선하다고 한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는 “당신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선하다고 한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이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 예수님은 그가 죄인임을 자각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

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은 십계명 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앞의 계명들은 건너뛰고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여섯 가지 계명은 모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20-22절)

예수님과 질문한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행위에 대해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질문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행위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그에게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

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그렇다면 한번 모든 계명을 정말 다 지켰는지 증명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질문한 사람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했고, 얻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구원을 얻을만한 진정한 사랑과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지 입증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시인했어야 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의인인지 알았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았지만 이제 제 스스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 3. 행위를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십계명을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질문한 사람이 한 말과 그의 생각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그가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질문한 사람은 자신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계명을 다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십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바로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한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며, 그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기준과 의로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듣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온 사람과 같이 슬퍼하며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 4.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당신은 부자가 왜 구원받기 어려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자

들은 좋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좋은 집에서 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흥미 있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부자들은 가족들과 둘러앉아 좋은 음식과 음료를 마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흥미 있는 제안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게 별로 와 닿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부자라는 것이 곧 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자라는 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부자는 구원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들이 놀랐을까요? 어쩌면 그 당신의 종교지도자들은 지금의 종교지도자들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말을 하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풍요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도대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라는 거 자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게 입증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의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동시에 현재의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

다.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와 구원은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4. 재물을 신뢰하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24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자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요소는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그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재물에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재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발발침으로 삼으시는 분께서 당신의 은행 잔고나 소유한 부동산 목록을 보고 감동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유한 재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 뇌물을 먹이려는 시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진주로 된 문을 보여주실 겁니다. 황금으로 된 보도블록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요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물질적인 축복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축복을 둘 다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도 받으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 만원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모두 사용하는 사람이 일억 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큰 돈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돈으로 무엇을 할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 5. 신약과 구약의 축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 세상에 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재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재물로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미혹된 결과 사

람들은 자신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해 쓴뿌리를 가집니다.

독자 중에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재산이 별로 없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중 누가 더 큰 기쁨을 누릴지는 분명합니다.

하워드 휴즈에 대해 들어본 독자가 있을 겁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20년 동안 호텔의 최고층에 거주하면서 머리도 전혀 깎지 않고 손톱도 깎지 않은 채 미치광이로 살았습니다. 그는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죽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누군가 빼앗아갈 것이 두려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외부침입을 막는 안전 장치들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로 인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재물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신뢰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 6.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미신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늘귀라는 문이 있는데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짐을 모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낙타는 그 “바늘귀 문”을 통과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2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 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늘귀 문”이 아니라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 사용하는 바늘에 실이 들어가는 구멍인 바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타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고 다니는 갈색의 덩치가 크고 못생긴 짐승입니다. 따라서 사람보다 큰 낙타가 작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재물이건 무엇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매”

유대인들은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구약) 유대인들이 믿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자 새로운 시대(신약)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 세상

에 세워질 물질적인 왕국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왕국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극도로 놀랐던 것입니다.

## 7. 세 가지 관점: 사랑의 관점, 탄식의 관점, 희망의 관점

마가복음 10장 본문을 보면 세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21절에보면 사랑의 관점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자아중심적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며 바라보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23절에서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탄식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주님의 희망의 관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했던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심으

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 8.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이 문제에 관해 신학자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자신을 신학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성경교사는 자신을 신학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신학자들은 종교개혁 이래로 이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논쟁해 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칼빈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자입니까?” 존 칼빈을 따르는지, 혹은 제이콥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지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칼빈이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칼빈주의자고 아르미니우스가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저는 성경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이 둘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성경 외에 다른 누군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칼빈이 주님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하고 아르미니우스가 주님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하지만 둘 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 모두를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누구를 개인적으로 지옥에 보내고 누구를 개인적으로 하늘나라에 보낼지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은 오직 하늘나라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비성경적인 것을 믿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장로교회와 개혁주의자들과 일부 침례교회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방울도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제한된 속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교리도 선한 의도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존 칼빈은 로마 가톨릭이 인간은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든 것을 가르치자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치면서 인간이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해주셔야 온전하고 순수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칼빈주의와 대칭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해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원은 모두 인간의 결정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저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해 주신 일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중간 쯤에 진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를 인도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지옥에 가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지옥에 갈 수밖에, 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께 “당신은 제가 피할 길을 주지 않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많은 개신교인들이 칼빈주의를 믿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믿는 이유는 그들의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칼빈주의라는 핑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더해지지 않는 이유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즉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 위해 칼빈주의를 고안해 낸 것입니다.

## 9.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으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3-4)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당신이 구원받을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5-6절) 성경에 의하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정된 일부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만일 당신이 자신의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아무도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라고.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딤후 4:9-10)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지옥에 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도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특히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과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거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 전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받는 것은 인간입니다. 받지도 않는데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지도 않는데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는 것은 받는 것일 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주지도 않는다면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선물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거나 거절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

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원을 누리고 거듭나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목자이시며 목자장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자이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도 되시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자셨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 나아가야 할 분이 단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께 나아갔을 때 그분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너는 선택된 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은 누구든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10.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4-15)

차이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지는 않고 “살아 있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둘 중 하나를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14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느냐고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누군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나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나요? 만일 지금까지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베드로후서 3:9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가

르치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군가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멸망하지 않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11.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사실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없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실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8장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4-6)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제한된 속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 12.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다릅니다

칼빈주의가 위험한 교리인 이유는 이것이 운명론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인데 누가 그것을 피해 갈 수 있고 결과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루한 나날을 보내셔야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무엇을 강제로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해 놓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면서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해 놓지 않으실 능력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 조작해 놓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는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다 보면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발로 차서 자전거를 넘어뜨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은 아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요일 2:15-16) 성경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앞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같은 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1-2절) 예수님께서서는 사악한 세상에 속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화해 헌

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칼빈주의자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사람들은 항상 원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선택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교리와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일서 2:15-16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선택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성경은 “선택된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됩니다. “선택된 자들이나 선택된 자들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선택된 자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선택된 자들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선택된 자들에서 나느니라.”

성경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느니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게 훨씬 편할 뿐 아니라 안전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성경을 맞추지 말고 성경에 당신의 믿음을 맞춰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라디오 설교를 녹음하러 방송국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앞 시간은 칼빈주의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면 왜 설교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누군가

당신의 아들을 차로 치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기도를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가해자를 고소하겠습니까?”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외라고 합니다. 한번은 어떤 칼빈주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나요?” “네, 저는 1964년 이후로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부인에게도 당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 실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니까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서만 죄인을 만나십니다. 만일 당신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만일 당신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당신과 저는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 13.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 2:9)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오직 선택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선택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  
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  
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  
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  
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요일 1:1-9)

여기서 말하는 빛(Light)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의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빛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로 이끌리라, 하시니라.”(요 12:31-32)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비취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님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이 인생에서 단 한번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경  
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  
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계 22:17)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성경은 “예정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받으리라.”(행 16:3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자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셔서 이 구원자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 6. 구원의 길

우리는 오늘 성경을 십여 군데 찾아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오늘 이 공부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주셔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1.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먼저 로마서 6:23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다” 라는 말은 영어로는 “is” 입니다. “is” 는 수학에서는 등호입니다. 즉 “is” 의 앞과 뒤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 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is” 가 사용되어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한 생명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s” 를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서 “is” 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삯인 사망과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죄의 삯인 사망 과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편에는 사망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생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달려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 해 하는 행위나, 하나님을 위해 이루는 업적이나, 인간의 존재 자체가 아 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에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 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사는가, 혹은 둘째 사망을 맞으며 불 호수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 당하게 되는가는 전적으로 예수 그 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 려있습니다.

## 2.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5:12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 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당신이 아담이 지은 동일한 죄를 지은 적이 없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지은 적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죄를 짓고 있지만 모두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짓는 동일한 죄를 자신은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처럼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처럼 심하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자신은 그리 심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류와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작은 죄나 강도가 약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약 2:10). 문제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아니라,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3. 하나님의 영광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로마서 3:23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



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준을 스스로 정하려고 하면 마귀가 즉시 와서 미혹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준 중 가장 첫째 자리에 오는 것은 교회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인가를 획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고, 따라서 자신들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영광스럽고 잘났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위선자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죄인들과 타협자들과 도둑놈들과 변태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 옆에 다른 무엇이나 누구를 놓는다면 다 그 기준에 한없이 미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여러 번 죄를 지었는가, 혹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혹은 얼마나 적은 죄를 지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비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 4.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냐, 작은 죄냐, 혹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적은 죄를 지었냐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이사야서 59장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사 59:1)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의 구렁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2절)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구원해줄 하나님이 있었었습니다.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끔찍한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켰다 해도 여전히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목주를 돌리고 성례를 치르고 침례를 받고 신조를 외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전에 한 일이나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할 일을 통해서는 이미 지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5. 앞으로 할 일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랜 된 책인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여기서 욥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면서 울부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울부짖음이었고 또 인간의 울부짖음이기도 합니다. 욥기 9장입니다. “내가 사악할진대 어찌하여 헛되이 수고하나이까?”(욥 9:29)

욥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악하다면 무엇을 하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저지른 죄로 인해 죄인이 되었다면 앞으로 무엇을 하든 과거에 이미 지은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에 나온 욥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리이다.”(30-31절)

만일 당신이 물에 잠긴 적이 있다거나(침례), 누군가 당신의 머리에 물을 뿌렸다가(세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어느 날 자신이 전혀 씻음 받지 못한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안타깝게도 그 때는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32-33절)

욥은 지금 자신이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죄가 그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서서 중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손을 얹을 수 있고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손을 얹을 수 있는 존재를 욥은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와서 중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중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살던 시대에는 그런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에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실패했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다윗도 실패했고, 엘리야와 침례인 요한도 실패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서서 양쪽에 손을 얹을 중재인을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높이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을 돌리는지 아십니까? 구원자 없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설 중재인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 6.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때가 이르자 중재자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구원도 받지 못한 채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며 구약 성경을 읽는 동안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저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 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갈 4:3-5)

충만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욥이 울부짖으며 간구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며(마 1:23),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창조자이시고, 요한복

음 10장에 의하면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시며, 요한일서 5장에 의하면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를 이루며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충만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성경 교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왕을 보내신 것도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구원자와 중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구원자와 중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완전히 고정되고 나면 어떤 설교나 부흥회나 찬양으로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 7.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히 10:1-4)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이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계명을 지키고 의식을 수행해도 당신의 양심은

여전히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성경은 황소나 염소나 어린양이나 비둘기의 피로는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죄의 본성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붉게 물든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나 종교 행위나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치르더라도 죄가 제거되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무의미한 똑 같은 일만 반복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은혜가 아닌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선행이나 의식이나 제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모두 은혜가 아닌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죄가 진정으로 제거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자신의 죄가 진정으로 용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양심은 당신이 그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당신을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을 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통해서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는지 알지 못하기에 확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통해서도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하신 일을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을 통해서만이 참된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5-10절)

10절에서 말하는 “이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마 26:39).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마련된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당신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몸을 통해 이루신 일에 달려있었습니다. 저의 구원과 거룩하게 됨과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달려있습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 막았던 저의 죄는 모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놓여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 위에 있는데,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 2:24) 나무에 달린 그분의 몸으로 저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였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죄를 담당하여 제거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죽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구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단 한 번 영원히”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죄를 짓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는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

의 교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람의 행위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믿고 그분을 받아 들였는지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종교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고 단순하게 성경에 복음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every priest)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take away) 못하거니와”(11절)

성경은 인간 제사장의 섬김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모든 제사장(every priest)”의 모든 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의 제사나 제사장으로든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성경이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take away)”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죄들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천년 전에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 죄를 제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지금도 제사장(priest, 사제)에게 가서 계속 제사(미사)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드리는 그 제사들로 그들의 양심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그런 제사를 많이 드려봤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도 불법과 죄들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이 단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도, 구원의 확신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평안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종교를 비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사제)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희생제사(미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마귀의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한 번 드리셨다면 더 이상 죄를 제거하기 위한 다른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12-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저의 믿음과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을 때, 저는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께 제 믿음과 신뢰를 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저의 모든 죄는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는 제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 완전한 구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제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의 구원자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

어 놓으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게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게 된다면 그 구원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엉터리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자신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는 아무런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저의 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거기에 아무 더할 게 없고, 아무것도 더해해도 안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만으로 제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부족하다면 저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를 흘리고 값을 치르신 것에 제가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 그분의 피로 이룬 대속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완성하신 일에 저의 행위를 더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완전히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저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일은 바로 저를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 8.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

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요 19:28-30)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디모테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딤후 1:15)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을 시작할 테니 너희가 완성하거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의 다 이룬 구원을 줄 테니 너희가 마무리하거라.” 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을 믿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구원과 한참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 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고전 15:1-4)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이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이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당신에게 구원과 거룩함과 완전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17-18절)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들을 기록

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20:31).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온전히, 전적으로, 진심으로 믿는지 자문해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름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죽도록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주님을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원유값상승, 자원고갈, 부정부패, 환경오염 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개인적인 문제로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해도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게 된다면 전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분이 자신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 7. 구원의 증거

오늘은 구원의 증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가지 구원의 내적 증거에 대해 살펴본 다음 5가지 구원의 외적 증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후 13:5) 또한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11:31-32)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과 자신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

룹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평가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아무런 행위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 2:8-9)

저는 선행으로는 하늘나라에 가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문맥에서는 항상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은혜로만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 1. 내적 증거 1: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먼저 7가지 내적 증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 4:7-8)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첫째 방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행복해 하는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주님께 복을 받았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불만과 불평을 가져가 시고 참된 행복을 넣어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병에 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녀도 죽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스 요금을 내야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가스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우산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비를 맞고 구원받은 사람도 비를 맞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동차도 고장 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동차도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 2. 내적 증거 2: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둘째 증거는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도다.”(롬 5:1)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거듭났다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요일 3:20)

구원받은 사람과 종교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설교가 듣기 싫을 겁니다.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밤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두 눈을 감고 정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잠자리에 든 채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내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한 변호인이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의 영원한 거처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늘나라의 왕좌에 앉아계신 분은 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를 청산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모두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며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척해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오던 모든 정죄가 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정죄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누구도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구절들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속에 이전에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밤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오늘 밤 죽어서 영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불안하신가요? 만일 불안하다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바로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3. 내적 증거 3: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롬 5:11)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함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기쁨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일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이 암에 걸려 병원침대 위에 누워있어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이것을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다.

다. 당신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기쁨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4. 내적 증거 4: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악 된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대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롬 6:20-21)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네 번째 내적 증거는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의 삶과 과거에 하던 일들과 과거에 가던 곳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를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나갔었는지 상관없이 과거의 죄와 과거의 생활과 과거의 인생을 부끄러워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죄와 죄악된 과거의 인생에 대해 단순하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사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다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고 얼마나 화끈하게 죄를 지었는지를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화끈하게 놀러 다녔지만 지금은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그런 죄악된 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일

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행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고 방식과 관점이 변합니다. 이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과거에 짓던 죄들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 합니다.

## 5. 내적 증거 5: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롬 7:22)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일반적인 남자들은 술을 마시는 것을 즐깁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일반적인 남자들은 술을 즐겨 마십니다. 술을 마셔야 한다고 격려하거나, 왜 마시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술을 즐겨 마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어떤 설교자도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고 당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과 실제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못해서 안에 속사람이 없거나 속사람이 있기는 한데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새로 태어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의에 굶주려 있고 갈망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거듭났으며 새로운 창조물이고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났다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갓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젖을 갈망합니다. 조금 전에 먹은 것 같은데 또 젖을 달라고 읍니다. 당신은 갓난 아기가 젖을 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갓난 아기는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 새벽, 가릴 것 없이 젖을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의 속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동일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다른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고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 오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감증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증을 느끼는 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 6. 내적 증거 6: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롬 8:13-15)

구원받은 사람의 여섯 번째 내적 증거는 죄에 대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끊으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을 그만두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입에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듣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욕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자동차는 없었습니다. “빌어먹을 자동차”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처럼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욕은 저의 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사시는 분이 저의 육신이나 습관보다 월등하게 강하시기 때문

입니다.

죄를 끊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내주하시도록 모신 적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 도와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청산하지 못한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당신이 모든 죄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 **7. 내적 증거 7: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마지막 내적 증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롬 8:26)

당신은 구원받기 전에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1장은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

은 이후에 하는 기도와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할 때는 누군가 막연한 존재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께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며 그분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 8. 외적 증거 1: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5가지 외적 증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할 것은 이것들이 외적 증거이기는 하지만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증거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 마음에 있는 기쁨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 받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전의 죄악된 생활을 부끄러워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웃과 친구와 친척과 가족이 볼 수 있는 구원의 외적 증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너희가 킹제임스성경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천년주의를 믿고 근본주의를 고수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성별되어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35절)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엉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만 제대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엉터리로 믿기 때문에 그들을 증오하고 비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의 태도는 제가 거리설교를 할 때 저를 욕하고 지나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의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저기 저 사람이 보이느냐? 저 사람은 너의 형제니라. 저 사람도 네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피로 구원받았느니라. 저 사람도 네가 가는 곳과 동일한 하늘나라에 가느니라. 저 사람의 구원자도 너의 구원자와 동일하며, 저 사람의 아버지도 너의 아버지와 동일하단다.”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모든 일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 중에는 제가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과 제가 구원 받았다면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당신과 제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과 제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독자 중에는 너무 오랫동안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인용한 구절이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킹제임스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리처럼 서로 미워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서로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 9. 외적 증거 2: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이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요 14:21)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외적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들

을 지키려 하는가' 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의 신앙고백을 누가 믿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려 마음이 있습니까? 입술로만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이 기독교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비성경적인 교회에 다니고 비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비성경적인 교회 활동을 하고 비성경적인 봉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 마음이 없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마귀의 말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마귀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마귀적인 것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 **10. 외적 증거 3: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

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행 9:26-28)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바로 제자들과 합류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외적 증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훌륭한 본은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리면, 제가 구원받았을 때 누구도 저에게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예배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교회에 갔고 정기적인 모임이 없는 날에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저는 옛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교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다른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며 주님을 섬기고 교제를 나누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있는 곳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옛 친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당신



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신의 옛 친구들은 더 이상 당신과 죄를 즐기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혀 개의치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함께 죄를 즐기던 친구들을 잃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새로운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백배의 형제와 백배의 자매와 백배의 아버지와 백배의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즐겁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저는 위선자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교회에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11. 외적 증거 4: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영어로

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음-역주)”(롬 10:9-11)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네 번째 외적 증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을 열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단 한번도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에 대해 어떻게 부끄러워하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하신 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독자 중에는 제가 몇 년째 알고 지내지만 단 한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분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년 동안이나, 심지어 평생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12. 외적 증거 5: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 3:6, 9)

우리는 여기서 두 본성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당신과 죄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를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심지어 죄를 전혀 지을 수도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관점이 변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거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지금 이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8. 단순한 복음

먼저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균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롬 5:12-21)

다시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혼자 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죄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동산에 두셨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 즉 죄가 인류에게로 전달된 방법은 아담이 죄에 감염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먹은 과일이 무엇인지 궁금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과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아담이 먹은 과일이 사과나 포도였다고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고 합니다.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사탄은 아담의

아내에게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지식을 원하지? 알고 싶지? 똑똑해지고 싶지? 너의 지성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는 네 생각대로 하고 싶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아담의 아내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곧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리색깔이 다르고, 눈동자의 색깔도 다르고, 피부색깔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골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모두 인류의 첫 조상으로부터 같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죄(sin)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상속받았습니다.

계속해서 12절의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2:17).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죽었습니다. 아담의 아내도 선악과를 먹었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인 셋도 죽었습니다. 가인도 죽었고 아벨도 죽었고 당신의 고조 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죽은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나쁜 죄를 지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진짜 나쁜 사람이 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작은 죄라도 결국 죽음이라는 결말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며 자신이 더 낫다고 주장하지만 비교를 하는 사람이나 비교를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 죽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당신은 당신 주위에 있는 나쁜 사람보다는 나을지 몰라

도 죽음에 이르기엔 충분한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롬 6:23).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말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를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정부는 국민들이 죽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타면 안전벨트를 매라고 합니다. 또 금연해야 한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교통질서를 지키라고 합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모두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러한 법규를 잘 지켜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싸워 승리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죽음은 본질이 아닌 결과(값)일 뿐입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죽음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죄입니다. 만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그만두고, 앞으로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며, 과거에 지은 죄를 모두 없앨 수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벨도 죄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죽음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죽는 이유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제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건강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막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13-14a절)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등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기 몇 백 년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나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십계명을 지키고 교회에 나가고 십일조를 하고 침례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키고 훌륭한 교회에 나가고 십일조를 바치고 침례나 세례를 받는다 해도 여전히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십계명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다른 계명을 범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아직 그러한 계명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습니까?



까?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힘과 혼과 생각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십계명을 지켰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성경에 나온 계명 중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단 하나라도 어기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단 하나의 죄라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당신 스스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당신이 죄를 처음으로 지은 바로 그 순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를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대꾸하지 말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치거나 잘못된 일을 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이미 가르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혈관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분은 제 말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당신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음란한 생각이 가득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로 무엇인가를 하거나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만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종류의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가인이 지은 살인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노아처럼 술 취한 적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처럼 간음한 적도 없을 겁니다. 모세처럼 살인한 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죄를 지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절의 뒷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성경에 의하면 아담이 마지막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째 아담이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 15:45). 첫째 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 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 범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은 죄를 지은 반면 둘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왔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이 지은 죄와 둘째 사람을 통해 온 선물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

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지는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시다.

한쪽에서는 아담을 통해 죄의 본성을 받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시다. 이 둘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습시다. 그렇다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시다.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첫 번째 차이점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정죄를 받았습시다. 당신이 아담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시다. 그러나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면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입시다.

두 번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시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 받은 단 하나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 정죄를 받게 되었습시다. 단 하나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된 것입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은 지은 20,000개가 넘는 죄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시다. 다른 사람이 지은 단 하나의 죄가 당신을 정죄했지만, 다른 사람이 행한 단 한 번의 의로운 행위가 당신의 수많은 죄를 덮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선물의 차이점입시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 무덤을 너머 지옥으로 가고 있습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들은 그 새로운 출생을 통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죽음이 인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저는 사망이라는 정죄를 받습니다. 저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자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거듭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재혼하는 것도 거듭남이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어 새롭게 사는 것도 거듭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썩어질 아담의 씨를 통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며 죽음이라는 정죄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선택사항도 없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든 말든 당신은 아담의 씨이며 그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은 당신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값없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혼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첫째 사람인 아담 안에서는,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록 몸은 죽을 수도 있지만, 혼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게 된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된다.” 이 말은 성경의 진리를 잘 담아냈습니다. 이 말대로 아담의 자손으로 한 번만 출생하면 몸이 죽은 후에 불 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아담의 자손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므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단 한번만 육체의 죽음을 죽게 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저의 몸을 땅에 묻고 있을 때 저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영원한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으로 한 번 태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결정으로 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결정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두 군대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창 5:1-2)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여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성(family name)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자의 성은 결국 남성인 아버지의 성을 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의 이름을 모두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남자가 여자를 이브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뒤의 생애는 팔백 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 생애는 구백삼십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셋은 백오 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팔백칠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 생애는 구백십이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4-8절)

성경은 11절과 14절과 17절과 20절과 27절 등에서 계속해서 “죽으니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씨를 통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구약성경의 맨 끝인 말라기 4:6은 “저주”라는 단어로 끝납니다(영어 킹제임스성경의 경우 마지막 단어가 “a curse”입니다.-역주). 구약성경은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주”라는 말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마 1:1) 이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2-4절)

창세기 5장과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누구 누구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 두 권 나옵니다. 당신이 첫 번째로 출생했을 때에는 아담의 세대에 속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저주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게 됩니다.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은 “저주”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 22:21) 첫째 사람인 아담의 세대는 저주로 끝나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은혜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요 3:6a) 여기서 말하는 육이란 것은 아담의 씨에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육신, 육신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6b)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다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음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만일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출생, 즉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우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을 모른 채 수많은 시간을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이 문제에 비하



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당신이 늙어서 편안하게 죽든,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든, 암으로 죽든, 총에 맞아 죽든, 그건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당신이 어떻게 죽었든 상관없이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옥에 가게 되고 불 호수에 던져진다면, 당신이 암으로 죽든, 물에 빠져 죽든, 편안하게 죽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든, 그건 정말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죽었던 상관없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집이나, 타는 자동차나, 먹는 음식이나, 느끼는 감정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어느 세대에 속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담의 세대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바로 종교와 구원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종교는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에 다녀야 하고, 침례를 받아야 하고, 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을 비교해보시고 순종한 것이 더 많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따위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저지른 불순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인자가 되기 위해 사람을 몇 명 죽여야 합니까? 단 한 사람만 죽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몇 번이나 불순종해야 할까요? 역시 한번이면 족합니다. 단 한번만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런 허황된 결심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는 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당신이 아닌 그 의로우신 분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당신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부르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던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단 한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자신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

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값없는 선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얻을 수 있도록 나눠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공로도 없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값없는(공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나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의롭게 행하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불의한 채 그대로 나아와서 주님의 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용서와 의로움과 순종과 완전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가 알던 것보다 저는 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

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가 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제가 이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능가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지만 은혜가 바다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의롭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죄악으로만 가득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저에게도 주시겠습니까? 주님께는 저에게도 베풀어 주실 은혜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에게는 충분한 은혜가 있다. 너에게 베풀어줄 은혜가 충분히 남아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치렀다. 그 안에서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들일 것이다.”

저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의 쉼 곳도 예수 그리

스도 안에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무엇으로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저의 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합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그곳으로 데려간 모든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큰 흰 왕좌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본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큰 흰 왕좌 심판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통치하실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더 이상 사망이나 장례식이나 장의사나 무덤이나 통곡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곳에 생명과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축복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또 성경대로 묻히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실 때는 단 두 사람만 보십니다.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건 간에 당신은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14에 의하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5:45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열 가지 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고전 15:47).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십니다(고전 15:47).

둘째, 첫째 아담은 옛 창조의 왕이었지만(창 1:26-28), 마지막 아담은 새 창조의 왕이십니다(고후 5:17). 셋째, 첫째 아담은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는데도 실패했지만(창 3장), 마지막 아담은 광야에서 시험 받았지만 승리했습니다(마 4장). 넷째, 첫째 아담은 이 세상에 죄와 죽음과

정죄를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의와 생명과 의로움을 가져왔습니다(롬 5:12-21).

첫째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통치하게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 은혜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롬 5:14-17, 21). 여섯째, 첫째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롬 5:19). 일곱째, 우리는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 아담 안에 있지만(요 3:6), 영적 출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덟째, 첫째 아담은 정죄를 받았지만(창 3:17-19), 마지막 아담은 정죄를 받지 않으셨고(롬 8:33), 그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롬 8:1). 아홉째, 첫째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창 3:23-24),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롬 8:38-39). 열째, 첫째 아담 안에서의 미래는 죽음이지만(롬 5:12), 둘째 아담 안에서는 생명입니다(롬 5:17, 고전 15:22).

### ‘첫째 아담’ 과 ‘마지막 아담’ 비교

1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2	땅에서 났음(고전 15:47)	하늘에서 오심(고전 15:47)
3	옛 창조의 왕(창 1:26-28)	새 창조의 왕(고후 5:17)
4	완벽한 환경인 에덴에서 시험 받았으나 실패했음(창 3장)	광야에서 시험 받았으나 승리했음(마 3장)
5	죄와 죽음과 정죄를 가져왔음(롬 5:12-21)	의와 생명과 의로움을 가져왔음(롬 5:12-21)
6	죽음이 통치하게 되었음(롬 5:14-17)	은혜가 통치하게 되었음(롬 5:21)
7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음(롬 5:19)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었음(롬 5:19)
8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 아담 안에 있음(요 3:6)	영적 출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9	정죄를 받았음(창 3:17-19)	정죄를 받지 않음(롬 8:33, 1)
10	하나님과 분리됨(창 3:23-24)	결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음(롬 8:38-39)
11	미래는 죽음임(롬 5:12)	미래는 생명임(롬 5:17, 고전 15:22)

## 9. 에티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8장과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



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행 8:26-35) 일단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읽은 것을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인이었으며 내시였고 여왕의 큰 신임을 얻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나 회사나 가정의 재정을 맡고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에티오피아라는 한 국가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간다게 여왕의 신임을 얻어 한 국가 전체 재정을 책임진, 오늘날로 보면 재무부장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리를 간략하게 하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국가에서 인정받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만 큰 성공을 거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26절에 의하면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은 내용적으로는 우리의 구약성경과 같지만 배열이 다릅니다. 그들의 성경은 역대기하로 끝나는데 역대기하의 마지막 구절은 이

렇게 끝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대하 36:23)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종교적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종교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능력 있고 종교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마차는 오늘날의 자동차처럼 승차감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도로도 전부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약조건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찾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공부에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고 종교생활

도 하고 심지어 바른 성경도 읽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선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하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모두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번도 이러한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의 다른 면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join), 하시거늘”

당신에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틀림없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즉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무엇을 갖다 바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하거나, 어딘가에 가입해야 하거나,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선하고 종교적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지도 않으셨고 특별한 영을 보내지도 않으셨고 환상을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직접 내려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구원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 1:21).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롬 10:17). 이런 얘기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방법입니다. 이 외의 다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구원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방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망쳐버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술을 끊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끊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한 모금도 마신 적이 없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끊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

면 마약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다니거나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물침례를 통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침례인 요한이 요단강에서 계속해서 침례를 주도록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하신 지혜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30-31절)

제가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 구원받은 분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든 진리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당신과 저를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구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에 자신을 내맡겨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입을 열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도라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전도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구원받게 되는데 여기서 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시는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빌립을 청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내시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흔히 얘기하는 “준비된 영혼” 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대가 읽은 것을 깨달느냐?” 라고 물을 때, 내시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당신 갈 길이나 가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 처럼 종교가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고 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은가요? 만일 당신도 알기를 원한다면 제가 성경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preached).”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통해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내시에게 예수님에 관해 설교(preaching)한 것입니다. 그가 읽고 있던 부분을 이사야서에서 찾아보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교(preachin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강해설교, 주제설교, 간증설교, 부흥회설교 등 장소나 방법이나 목적이나 본문에 따라 설교의 종류를 나누기도 합니다. 설교의 정의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야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성경을 가르치면 그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설교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preached). 다시 말하면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에 관해 설교한 것입니다(preach). 그러나 그는 내시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강단을 주먹으로 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방방 뛰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에 관해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첫째는 어떻게 둘째는 어떻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설교요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5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report)을 누가 믿었느냐?”(사 53:1)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한 것(보

고, 이야기, 또는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제가 전하려는 소식은 날씨나 책이나 뉴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려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이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세상까지 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으시려는 하나님께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해주시고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소식은, 당신이 구원받으려고 뛰거나 오르거나 붙잡거나 이루거나 투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당신은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를 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가난했고, 교육받지도 못했고, 육신적으로는 매력이 없었으며,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대단한 단체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병원을 세우지도 않았고 자선단체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지도 않았고 압제하던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33년 반을 사는 동안 대단한 일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33년 반을 사셨고 생애의 대부분은 목수의 일을 하면서 보내셨고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대부분 교리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욕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면서 그분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처나 모하메드나 교황의 이름으로 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합니다.

“거부되었으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알려주겠다고 해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감추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나 이미 했

을 때 누군가 본 사람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일단 안심은 하지만 마음이 온전히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누군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켜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피하고 그분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감추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을 받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이야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잡히는 날에는 지옥으로 던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붙잡으시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던져버리기 위해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옥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찾

으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이미 정죄 받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요 3:17)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영화배우나 운동선수나 가수나 부자나 모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구원받은 분들이 있다면 당신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사장이나 이웃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보다

훨씬 더 존중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여기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에 대한 보고(report)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떤 본을 보이기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을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성경을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고통을 짊어지고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

니까? 지옥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을 모두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고통과 슬픔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에서는 고통과 슬픔을 모르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곳에 있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롬 3:10)고 말씀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롬 3:23)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고 저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왕좌에 앉아계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

하셨다면 이것의 소유권에 관해서는 누구도 논쟁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곳에 누가 가고 누구는 갈 수 없는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은 그곳의 왕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는 어떠한 죄도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죄나 불법이나 범법도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늘나라에 죄가 들어가게 되면 하늘나라는 더 이상 하늘나라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어떤 죄라도 들어올 수 없게 하신 겁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서의, 요일 5:7 참고)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상하고 징벌을 받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저를 위한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저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경은 당신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

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아무런 죄를 보실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신 것으로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가 십자가 위에 있던 예수님께로 모두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에게서 아무런 불법도 보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불법이 십자가 위에 있던 예수님께로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에게서 아무런 범법도 보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범법이 십자가 위에 있던 예수님께로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겁니다. 당신이 죄 때문에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기록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던 소식(report)이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음에 있는 무거움과 부담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아십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모두 죄 문제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마음은 늘 불안한 가운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정죄하고 있는 당신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 내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개인적인 구원자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구원자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기를 원하십니

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당신의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랐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코 처리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내려놓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저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위해 저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줄 구원자를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저의 구원자에게 놓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귀가 보낸 사악한 영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항상 마귀가 보낸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인간의 마음밭에 뿌리면 사악한 영인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받는 당신의 마음 사이에는 무엇인가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시는 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한 가지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침례, 너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내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자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분들도 구원받기 전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어디든 나가서 종교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성령님께서 같보리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 사이에 끼어들어 당신을 다시 이전의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종교나 선행이나 침례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종교나 교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3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례를 받거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이전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 일부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거나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거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은 집 안에 있는 방과 같습니다. 집의 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고 하셨습니다.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을 침례라는 창문을 통해 받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도둑질을 하는 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을 선행이라는 창문을 통해 받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집 주인에게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창문이 아닌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문으로 들어가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침례나 선행이나 지역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방에 들어가야 하지만 방에 있는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시는 방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먼저 문으로 들어왔다면 방에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믿고 구원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침례입니다. 침례나 선행이나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모두 훌륭한 일이지만 구원보다 앞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저는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자 하십니까? 여기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시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그는, 영어에는 he로 되어 있음-역주)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38-39절)

어떤 사람들은 내시가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빌립이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둘 다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을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받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 역시 기뻐할 것입니다.

내시가 구원받는 것을 본 빌립은 정말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도 해결할 수 없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 죄책감은 사라지고 확신이 왔기 때문일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 채로 왔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독자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불행한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아닌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내시처럼 성경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구원받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쁨 가운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나서 교회 문을 열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시의 기쁨은 빌립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빌립은 내시의 마음속에 있던 기쁨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의 기쁨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기 오래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쁨을 당신에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당신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그분을 당신 안에 모시게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고, 심지어 성경공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독자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기쁨 가운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피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주셔서 당신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행 16:31) 아멘.

## 10. 예수님의 찢긴 몸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 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고전 11:23-24)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먹는 것을 통해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주님의 찢긴 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25-26절)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빵과 잔을 나누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찢긴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훌륭한 침례교인이라면, 아니면 훌륭한 장로교인이라든가, 감리교인이라든가, 하여튼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그 무엇이든 간에, 만일 어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겠습니까? 만일 침례나 세례를 통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셨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다면, 선행을 통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왜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이 없는 것일까요? 만일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성경에는 무엇을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희생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과 제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희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선행을 통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독한 어리석음이자 큰 실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죄인을 위한 고귀한 대속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일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과 희생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실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죽도록 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실제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표현은 24절에 있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라는 말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긴 예수님의 몸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먼저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그분의 몸을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막 15:15)**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인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다 지옥에 갑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래토리움이라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thorns)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15-19절)**

이것은 정말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인



간의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이 어떤 식으로 주님을 조롱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찢긴 주님의 몸입니다. 군인들이 한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주님의 머리에 씌울 뿐만 아니라, 이미 가시나무로 만든 관이 씌운 머리를 갈대로 내리침으로 머리에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머리에 가시가 찢려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에 가시가 찢리면 아마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인간의 육체 중 가장 고통에 민감한 곳이 바로 두개골을 감싸고 있는 머리일 겁니다. 성난 거친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쓴 우리 주님의 머리를 조롱하면서 갈대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당신은 성경에서 가시나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thorns)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 3:17-19)

가시나무(thorns)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땅이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시고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나 권세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요 18:4-6)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 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지 않았다면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모욕과 고난과 고통은 모두 당신과 저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마 27:30) 26장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마 26:67-68)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왕이라고 부르며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에 의하면 대언하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했고 대언하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갈대로 머리를 칠 뿐만 아니라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어떤 군인들은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후려쳤고, 어떤 군인들은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누가 쳤는지 말해보라고 조롱했고, 어떤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면서 모욕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인들로부터 끔찍한 고문과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악한 왕이 자신이 싫어하는 예언을 한 대언자를 향해 붙잡으라고 말하며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악한 왕의 팔을 말려버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에 손에 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따귀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씌우도록 자신의 머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수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찢긴 자신의 몸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찢긴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마 27:26)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죄수의 두 손을 기둥에 묶어두고 옷을 벗긴 후에 채찍질을 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누가 채찍질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던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들은 이 천년 전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총을 사용한 게 아니라 칼이나 창을 사용했습니다. 그때의 전쟁에서는 지금의 군인보다 훨씬 강한 근력과 팔의 힘, 그리고 손목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야만적인 군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마음, 즉 악의를 가지고 힘을 다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것입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은 인간이 참기 힘든 고통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진 채찍질을 견디기에는 인간의 피부와 근육의 내구성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이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중에서도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당하는 고통을 당신과 저를 위해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살펴 보세요. 사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을 묶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2:25에서는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기 전에 그의 손을 묶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딘가에 묶어두고 채찍질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분의 손이나 발을 묶어두고 채찍질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디에도 묶이거나 의지하지 않은 채, 도망가거나 피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몸으로 그 끔찍한 채찍질을 모두 견뎌내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채찍질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채찍질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고통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 자신의 찢긴 몸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을 보겠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사 50:6)

예수님께서서는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자원하여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야서 50장을 기억하면서 시편 129편을 보겠습니다. “발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자기 고랑들을 길게 내었도다.”(시 129:3)

당신은 쟁기로 밭을 갈아 깊은 고랑이 생긴 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날이 달린 쟁기로 깊은 고랑을 만들며 밭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

경은 사람들이 밭에 고랑들을 길게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하며 깊은 상처의 고랑을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동산으로 가신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은 고랑이 깊게 난 밭처럼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상처가 난 그 등으로 당신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선행이나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침례나 세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의 대속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당신과 저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미혹된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5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사 50:6)

수염을 길러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두 살짜리 아이도 수염을 잡으면 성인 남성의 얼굴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70킬로가 넘는 건강한 군인이 수염을 잡는다면 당신의 얼굴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뿐더러 당신의 몸 전체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당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당시의 군인들은 백병전이 유일한 전투 수단인 시대에 전투를 직업적으로 하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방패와 큰 창과 칼을 차고 전쟁에 임했습

니다. 그런 군인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후에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폭력을 주님께 행사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폭력을 자신의 몸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이런대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하메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지 말해보십시오. 부처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지 말해보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과 저의 찢값을 치르기 위해 이렇게 고통을 당한 분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찢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기도록 내어주신 분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찢렀나이다.”(시 22:1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그 손을 잡아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궁금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도록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등과 얼굴을 모두 내어 주셔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듬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발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올렸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귀가 미쳐 기억하지 못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요 12:32)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원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도 예수님이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요 19:28-30)

잠시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밤을 새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손과 발과 등과 머리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도



의 재판정에서 갈보리 동산에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채찍과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셨으며 결국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을 인간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아흠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cried with a loud voice),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마 27:46) 50절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cried again with a loud voice)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은 채찍질로 인한 고통과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큰 소리로 외치실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린 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과다출혈이나 고문으로 인해 죽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으며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려

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과 저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당신과 저를 위해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처형도구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어떠한 처형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죽이거나 처형하거나 고문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눅 23:46)

영이 떠난 몸은 죽은 몸입니다(약 2:26). 사람은 영이 떠나면 죽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도 자신의 영을 떠나게 하거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 내지 못하리로다.”(전 8:8)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스스로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치러야 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어느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죽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나 지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시고 내려 오셨다면 당신과 저는 모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당신과 제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 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 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 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 달아 놓고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종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참된 구원도 받지 못한 채 무슨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무엇을 지키면 되고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자신들 교회의 규칙이나 헌법

을 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채 평생을 종교에 속박되어 그것에 종노릇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꿰뚫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의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32-34)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심장이 문자 그대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겨지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죄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으로 인해 가슴이 매우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피가 먼저 나오고 나서 물이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과 더불어 침례를 실행합니다. 물과 피 중에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지 아십니까? 피가 먼저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물로 침례를 받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고, 등에 깊은 고랑이 날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셨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수염이 뜯기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이 통과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찢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히 10:1)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동물제사에 관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제사를 통해서는 결코 죄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2절) 만일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희생물이 있다면 다른 모든 희생물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

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3-14절)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하지도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지만 아무런 확신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고 시도하기만 할 뿐입니다. 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행위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불교도나 몰몬교인이나 여호와의 증인 등 그 누구에게 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의 종교가 게으른 종교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는 부지런한 종교입니다. 열심히, 의롭게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문제는 그 종교들로는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종교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종교들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자신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씻

겨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영원히 완전해졌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르지 않으신 죄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고 오늘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저를 위해 찢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를 위해 흘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한번의 희생이 저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러한 일을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 적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저를 위해 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해 준 다른 존재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알려줄 수 없다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구원자이다.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너의 구원자가 되어 주겠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 11. 세바의 여왕

오늘은 성경에 나온 한 명의 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것과 잘못된 것, 빛과 어둠, 구원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세바의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심히 많은 수행원과 또 향료와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녀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하여 그와 대화하매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

의 앓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 나르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시라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시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녀가 금 백이십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이 향료처럼 많은 향료가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도 오빌에서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주의 집과 왕의 집의 기둥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비파를 만들었는데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 오지도 아니하였고 이 날까지 보지도 못한 것이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의 여왕에게 준 것 외에 또 그녀가 바라던 모든 것 즉 그녀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주니 이에 그녀가 돌이켜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갔더라.”(왕상 10:1-13)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의 여왕도 한 국가의 왕으로서 부유했고 현명했으며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권능이 있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러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세바의 여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 그분이 진정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찾게 될, 이 세상에 살았고 살고 있고 살게 될 모든 죄인들의 모형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세바의 여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죄인들의 모형입니다.

## 1. 사람들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세바의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이곳에 계신 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시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셨으며 기쁨을 주셨고 행복하게 해주셨고 만족을 주셨다고 하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을 통해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었다고 하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12:32).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바의 여왕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로 찾아왔던 것처럼 독자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러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날이 올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요 12:3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계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언젠가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친구나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시기나 양상은 다르지만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세바의 여왕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들(질문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아무런 죄가 없는 갓난 아기들이 죽는가?”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프리카에 있는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UFO는 어디서 오는가?” “성경이 단순히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등 마귀가 오랫동안 마음에 던져 준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답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 난이도의 질문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도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로 온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공책에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적어놓고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구원받거나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열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죽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진리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람으로부터 들은 진리와 생명과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

십니까? 제가 성경을 미처 끝까지 다 읽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은 풀렸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4장에 이르러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공책에는 누구도 답하지 못할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적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답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이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이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당신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시고 만족을 주실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가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드실 수 있는가?” 만일 만드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들지도 못하니 전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만드실 수 없다고 한다면 만드시지 못하니 전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이런 식으로 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돌은 못 만드시지만 당신을 박살낼 수 있을 만큼 큰 돌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나 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돌을 만드시지 않는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을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UFO에 대해 묻기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UFO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받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UFO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도 UFO에 대해 궁금

해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UFO에 대해 묻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 물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거절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교도들은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이교도들은 마트와 백화점으로 갑니다. 이교도들은 어디든 갑니다. 이교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답을 주실 것이고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겁니다.

## 2.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세바의 여왕은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 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다른 것도 가지고 나아옵니다. “심히 많은 수행원과 또 향료와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하나님께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일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다거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세바의 여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과 재능과 선행과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런 것을 주님께 드리고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조그마한 인상이라도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재물이든 재능이든,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왕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보물과 보석과 가축과 기름과 광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소유한 어떤 재물에 큰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며 구원을 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제안에 관심이나 가지시겠습니까?

시계도 없고 시간도 없는 영원 전에,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할 그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오랜 기간을 지내신 뒤에 어느 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 년



이 가고 이천 년이 가고 육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난 오십 년 동안 자신은 단 한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영원 동안 단 하나의 죄도 지은 적이 없는 분께서 누군가 오륙십 년 동안 자신이 단 한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선해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부유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수백 억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희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금과 보석과 낙타들과 향료와 선행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3.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가야 할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해

서 2절의 뒷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하여 그와 대화하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자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서 TV나 라디오를 켜지 말고 인터넷도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도해보십시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 목사가 당신에 대해 설교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생 중 단 한번이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려보세요. “저는 교회에 가기도 싫고 성경을 읽기도 싫어요. 저를 억지로 교회로 끌고 가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싫습니다. 저는 그냥 마귀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당신이 저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건 말건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하늘나라에 가서

나 상관하지 않아요.” 만일 독자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단 한번 만이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보세요. 단 한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늘나라와 지옥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아시고 당신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속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주기 위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와 마음속을 쏟아놓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전혀 즐겁지 않은데도 즐거운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위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마음속을 쏟아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며 당신을 사랑

하십니다. 당신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비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새로운 마음과 기쁨과 평안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4.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에 관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숨겨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독자 중에는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뉘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한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세바의 여왕이 질문한 모든 것에 답을 주었습니다. 세바의 여왕은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앞으로 나아가서 질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 5.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

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 나르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4-5절)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기 전에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로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인도할 수 없는 진리로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가 건축한 집과”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위선자들도 있고 사기꾼들도 있고 전혀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상의 음식들과” 또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집의 상에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젓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야채를 먹고 어떤 사람들은 단단한 고기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빨리 먹고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먹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적

게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디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상에서 음식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으며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음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4:32). 그 음식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앉은 것과”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이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마 11:28-3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습니다(엡 2:6).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때에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오는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룬 화평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마약은 이러한 웃음을 줄 수 없습니다. 술도 이러한 웃음을 줄 수 없습니다. 담배도 이러한 웃음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음악도 이러한 웃음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웃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어라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섬깁니다. 기쁨으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성경은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왕 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관해 이야기하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짧은 치마를 입지 말라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합니다. 여기서 이 주제에 관해 긴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옷차림만 보고도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즐기고 지지하는 옷차림과 성경이 지지하는 옷차림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기준을 강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면서도 억지로 하도록 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이 하기 싫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입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there was no more spirit in her)”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영(spirit)이 없는 채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은 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이 깨지고 상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떤 종교도 고장 나고 깨진 영을 고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상한 영을 한 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 6.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그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이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한 그 모든 고백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몰랐고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복된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도자이시고 선생님이시고 위로해 주는 분이시고 친구고 형제가 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저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을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자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께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당신은 단지 머리로만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 7. 예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 전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당신 개인의 몫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표현하는 게 절반도 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제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구원받고 나면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에 대해 극히 일부도 묘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경험으로 알게 될 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 8.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그의 지혜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당신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에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항상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지혜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TV와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섬기는 이 세상의 신이 주는 삶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들의 신이 TV와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어떤 지혜를 주는지 아십니까? “음행을 하라. 음행을 하라. 화를 내라. 어머니에게 반항하라. 아버지에게 반항하라. 자살하라. 술을 마셔라. 담배를 피워라. 음행을 하라. 음행을 하라. 술을 마셔라. 담배를 피워라. 자살을 하라. 마귀를 섬겨라. 간음을 하라. 음행을 하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신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지혜를

듣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지혜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왜 비참한지 의아해합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인 마귀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사역자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메시지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평안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휴거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죽음에 대한 승리와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행복하신 분이요 성령님도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도 행복한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고 축복이 들어가면 축복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당신의 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와 동행할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 영원을 보낼 것입니까?

당신은 마귀의 속임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게 행복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행복해 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해변과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저를 비웃고 저에게 야유를 보냅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만일 제가 행복하지 않다면 수십 년간 그런 반응을 견디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세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당신이 어디를 가건 누구와 만나건 상관없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 각자가 이 행복을 어떻게, 언제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를 주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는 모두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디에도 참된 행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 오랫동안 참된 행복을 찾아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십시오.”

## 9.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입니까, 재판장입니까?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시라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시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왕이시며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자가 되지만 동시에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되실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재판장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재판장입니까? 만일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기를 거절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재판장이 되시어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 따라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하셨으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 10. 재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금 백이십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

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이 향료처럼 많은 향료가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알고 나서도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선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엡 2:10).

재물로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하고 재물을 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하고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게 즐겁습니다. 저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 등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즐겁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돈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돈을 씁니다. 제가 드린 재물로 인해 누군가에게 전도지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매년 제가 얻게 되는 첫 수효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제가 자신을 위해, 배를 채우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의 유희이나 정욕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재능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면 당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게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자신을 희생해서 복음을 전하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 않고 기도를 하고 싶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당신의 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오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능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당신이 희생하는 것은 당신이 되돌려 받게 될 복과 비교하면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 11.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의 여왕에게 준 것 외에 또 그녀가 바라던 모든 것 즉 그녀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주니 이에 그녀가 돌이켜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갔더라.”

솔로몬 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요 14:13-14)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실 겁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겁니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건전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기쁨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행하시고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실 겁니다.

세바의 여왕은 원하는 모든 것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큰 기쁨을 얻은 채로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들어



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 12. 창녀 라합

오늘은 창녀 라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과 출애굽기 15장과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합은 자신의 딸을 죽인 입다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남자와 여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은 창녀였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믿음의 여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녀요 서슴없이 거짓말까지 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점이 좋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인물을 다룬 위인전이나 기독교 위인들의 생애를 다룬 책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

도 잘못된 적이 없는 인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단 한번도 죄를 짓지 않거나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한 적이 있기 마련인데 위인전에서는 그런 얘기는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술에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도둑질을 했고 모세는 살인을 했고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더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의 영웅들이는데 성경은 이러한 영웅들의 죄를 숨기거나 정당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기는 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훌륭한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만일 당신이 완벽함을 원한다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완전무결한 죄 없음이나 완벽함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고, 또 이러한 점이야말로 성경이 인간의 생각이나 뜻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했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임을 이해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라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기 2장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의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이미 지붕에 가지

런히 쌓아 놓은 아마 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수 2:1-6)

일단 여기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다가 라합의 집에 숨어있었고, 그들을 찾기 위해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주석서들에서는 라합이 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주석가들은 마치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 미화할지라도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하는 좋은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변명한다고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선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마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언제나 거짓말일 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인간 본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거짓말은 진실을 얘기하면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거짓말”이라고 부를지라도 그것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모든 거짓말의 원인입니다.

어떤 소년이 길가에 서서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발 밑에는 “가장 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강아지를 공짜로 드립니다.”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가져가고 싶기는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 가져갈 수는 없겠구나.” 그러자 아이는 강아지를 목사에게 넘기

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방금 하신 말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은 거짓말 중에 가장 심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두려워 온전한 진실을 전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쁜 아기 아닌가요?” 이 말에서는 아기라는 부분만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라합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늪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7-8절)

어떤 사람들은 두 명의 정탐꾼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음행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창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는 것은 그리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니라.”(9-11절)

여기를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그때에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녹으리이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치매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하리이다.”(출 15:14-16)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후에 해변에 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셔서 그곳의 거주민들을 놀라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돌같이 잠잠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에게 자신들은 이미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팔로 역사하셨는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모세가 예언한대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라합의 고백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물침례를 통해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잊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것과 동일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원수들을 보고 벽들을 보고 대적한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롬 8:38-39)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하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도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사람들이나 원수들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롬 10:16-17)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단 한 사람만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소식을 믿고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히 11:31)

하나님께서서는 라합을 창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창녀였기 때문입니다. 이 창녀 라합과 여리고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같은 저주받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어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과 하늘나라로 가는 좁은 길의 차이점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에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2장으로 가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 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내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 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매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 내리니라. 그녀의 집은 고을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그 뒤에 너희 길로 갈지니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 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매어 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을 네 집으로 데려오라.”(수 2:12-18)

성경은 전도서에서 삼 겹 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전 4:12). 세 겹으로 된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라합이 창에 매어 두었던 줄은 바느질할 때 쓰는 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달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엮은 줄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실로 정탐꾼들을 성벽 아래로 달아 내렸습니다. 따라서 라합의 집 창문에 묶었던 줄은 튼튼한 줄이었습니다.

이 줄은 어떤 색이었을까요? 주홍색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했고 성경도 믿지 않는 불경건하고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창녀들

이 모여있는 지역을 “홍등가(the red light district)” 라고 부릅니다. 저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놀랍습니다. 왜 “청등가” 라고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노란색이나 자주색을 붙이지 않을까요? 왜 “적등가” 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창녀가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매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고 성경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움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통제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보다 더 현명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만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네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매어 두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거하며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을 온 길에서 두루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건너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심지어 그 지역의 모든 거주민이 우리로 인하여 기진해 있나이다, 하였더라.”(19-24절)

## 1.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6가지 교훈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라합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는 라합이 9절에서 한 얘기가 마음에 듭니다.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추측한다든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인생과 운명이 바뀌고 삶과 행동이 변한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입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삶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입술의 고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아는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약 2:25-26)

당신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믿는다면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것이나, 당신의 삶의 방향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믿었고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무런 행위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당신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행위 없이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행위를 통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9절에서 멈춰버리고 10절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라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 2.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라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둘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석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변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녀를 사용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아마 창녀가 아니라 여관 주인이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관이라는 말을 써야 할 때는 여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눅 2:7). 요셉과 마리아는 흥등가에서 방을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여관에서 방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합은 창녀가 아니라 단지 창녀들이 사는 집의 주인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창녀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바꾸려고 하는 것의 위험성을 아십니까? 우리가 라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건, 무엇을 했건,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은 죄의 구렁이에 빠졌든 상관없이, 얼마나 악한 세상으로 물들어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손을 뻗어 당신을 구원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석가들은 여관 주인이 구원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창녀가 구원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

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 21:31-32)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자신이 아는 나쁜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걸레 같은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라합이나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온 창녀들은 최악의 인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원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의 자격에 제한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죄의 구덩이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창녀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3.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이 세상이 심판 받기 전에 구원 받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여리고가 저주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한 작전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동안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도시를 일곱 번 돈 뒤 나팔들을 불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면서 신비의 바빌론이라는 한 도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와 다투시며 어느 날 그 도시를 대환난이 일어나는 7년 동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도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통해 그 도시를 심판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실지 아십니까? 이방인 여인을 그 저주받은 도시를 심판하기 전에 구출해 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6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had said),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매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주의 집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 두었으므로 그녀가 이 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수 6:22-25)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 말이 과거형(had said)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과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출한 게 성벽이 무너지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6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옛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1-3절)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7일 동안은 아무도 성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7일 전에 먼저 그들을 성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저주받은 도시가 심판 받을 동안 그곳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이 무너질 때도 그곳에 있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저주받은 도시를 중심으로 7년간 대환난의 진노가 퍼부어지기 전에 그녀는 그곳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창녀인 라합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훌륭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동일합니다. 대환난 전에 우리가 들림 받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해서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대환난 전에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4. 라합은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족도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31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며 라합에게도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라합은 자신만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전체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족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5. 라합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라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읽은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 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매어 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들과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을 네 집으로 데려오라.”

라합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만일 주홍색 실로 된 줄이 집 안에만 걸려있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라합은 창문 밖에서 보이도록 주홍색 줄을 매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 지나가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주홍색 줄을 매어둔 겁니다.

라합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합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매어뒀습니다. 이집트에서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문 기둥에 어린양의 피를 뿌린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맨 집은 심판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원합니다. 저는 숨어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강제수용소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자동차를 통해서건, 대문을 통해서건, 티셔츠를 통해서건, 글을 통해서건, 입술을 통해서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십시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시오. 문 기둥에 어린양의 피를 뿌리십시오.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매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롬 10:9-11)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 1:8).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가서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부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 주셨는지 말하라고 하십니다.

## 6. 대적하지 않는 사람과 다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라합보다는 정탐꾼들에 대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거짓말쟁이 창녀는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창녀를 책망하며 “당신 같은 사람 집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과 대적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만일 구원받지 않은 누군가가 당신을 돕고자 한다면 돕도록 하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도움이라고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을 받아들이고 돕고 대접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그때에는 침례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성결교인이나 은사주의자라는 차이는 없어질 겁니다. 그때에는 오직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교단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작은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며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2차대전 중 많은 신실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중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나치가 강제수용소로 끌고 가기 위해 유대인들 색출할 때 믿는 독일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교리를 믿는 유대인들만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상관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당신과 믿는 게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싸우지도 마십시오. 당신과 싸우지 않는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마귀와 싸우십시오. 우리는 우리와 믿음이 정확히 같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영원

을 형제 자매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만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교단에 속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독립침례교인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라합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이 한 거짓말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거짓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출 20:16)

당신과 저는 십계명을 본 적이 있고 들어본 적이 있지만 라합은 십계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오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아는 대로 행하십시오.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대로 행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지보다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고 사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 13. 혼인잔치로 초대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을 즐깁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실 때 자신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먹는 것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서는 모든 싸움이 다 끝난 뒤에 승리를 쟁취하시고 나서 천 년에 걸친 큰 잔치를 여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몸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과 잠언에 나온 많은 예언들은 이 날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가 살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당신의 마음에 만족을 주실 겁니다. 당신은 주님의 잔치에서 먹고 즐기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 1.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동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데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계 19:5-9)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무엇인가 참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됩니다.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나 교회 헌법 같은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며 진리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하신 혼인잔치에 관한 참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된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스랍들과 그룹들과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임받고 싶어합니다. 리더가 되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고, 일등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뛰어나고 높은 존재들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자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자기 사랑을 하며 사는 경우가 있지만 하늘에서는 모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하셨고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관한 것을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들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나라에 관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에 관해 많은 것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집에 살게 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하늘나라에서의 삶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맥주 파티나 마약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댄스 파티나 기타 여러 파티에 초대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파티에 초대할 때마다 정말 재미있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파티가 끝났을 때 이 파티에 초대되어서 나는 정말 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파티가 끝나면 언제나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파티에서 도덕성과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광적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티로 인해 참된 복을 누린 사람은 아

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잔치에 초대하고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약속하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게다가 진정한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참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 2.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관해 하시는 말씀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초대 말씀입니다.

끔찍한 일이겠지만 잠시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라면 당신 자신에 관해 바르게 판단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와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잔치를 여시는데 당신을 초대 하셔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일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초대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명단에 포함 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의롭고 거룩한 존재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지 의롭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네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네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네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눅 14:12-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실 때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돈을 주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명단에 넣으셨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명단에 넣어 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가난한 자들을 명단에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불구자도 명단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당신의 성장과정이나 배경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죄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미래까지도 모두 영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긴장하고 잘 생기고 사지가 멀쩡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당신은 영적으로 불구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였고 눈먼 자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잔치에 초대하신 겁니다. 당신이 잘나고 대단한 존재라서 잔치에 초대하신 게 아니라 불구자요 다리 저는 자요 눈먼 자이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

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당신이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리 저는 자를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면 똑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입니다. 종교나 신조나 선행이나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오랫동안 다리를 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고쳐줄 수 없었고 아무도 고침을 받도록 인도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자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무릎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이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교회나 목사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는 사람을 똑바로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당신은 모두 다리를 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구원으로 초대받은 이유는 당신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똑바로 걸어서 하늘나라로 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눈먼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중독자만큼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음은 참담했고 깊은 절망에 빠져 답답함에 몸부림쳤습니다. 걸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 내면은 엉망진창인 채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모든 것과 제가 배운 모든 것과 제가 가진 모든 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불구자이며 다리를 절고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거나 하늘나라에 가기에는 부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독자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독자 중에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잔치에 초대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셨던 사람은 가난하고 눈멀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가난하고 눈멀고 저는 사람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하신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두 가지 방향으로 속입니다. 한편으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속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사탄은 옆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봐. 네가 갔던 곳을 생각해 봐. 네가 어울리던 사람들을 생각해 봐.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추잡한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너 같은 더러운 죄인은 결코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실 거야.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초대하겠다.” “저를 초대하신다고요. 저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가요? 저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가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을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불구자입니다. 다리를 접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내가 왔느니라.”

만일 당신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초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불구자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초대받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당신이 눈이 멀지 않았다면 당신은 초대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구원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냥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저를 위해 죽어줄 만

큼 저를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저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다리를 절며 눈먼 자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저에게는 잔치에 참여할 값을 치를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께 갚아드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그곳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독자 중에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 **3. 예수님을 믿지 않을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의 하나가 이것들을 들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15-17절)

당신은 모두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당신 중 누구도 이 초대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힘입어 당신에게 담대하게 선언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당신이 어젯밤 어떤 짓을 저질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한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눈먼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고는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고 어린양의 혼인 잔



치로 초대하시는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과 재물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자동차와 땅을 바라 보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만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독자 중에는 결단을 내려야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지만 그 대신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기는 하지만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될까 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말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손해를 감수하기가 두려워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언젠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거실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고, 길을 가다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사실을 미리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고, 집에서 죽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죽을 수도 있고, 들에서 죽을 수도 있고, 교회 예배당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점은 당신의 낡은 몸이 마지막 숨을 몰아 쉴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당신이 마지막 숨을 쉬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의 초대를 거절한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최악의 결정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눈이 멀러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20년이나 30년이나 40년이나 50년간 소유할 것에 정신이 팔려 영원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쌍하고 가련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고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고 우스운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을 매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할지 알지도 못한 채 먼저 돈을 지불하고 소를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이 좋은지도 모르고 먼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한 후에 그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TV를 구매하고 나서 그것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아직 소 다섯 겨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어리석은 핑계를 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핑계를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월마트 앞에 앉아 있는 이십대 중반쯤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 거 같네요.”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요즘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알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저와 십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집에 방문해서 함께 성경을 읽으며 성경공부를 할 때 그의 부인은 저희를 비웃으며 저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인용할 때 그 여자는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나서 첫째 주일에는 교회에 방문했지만 둘째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에도 오지 않아서 제가 그에게 찾아가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아내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최악의 핑계였습니다.

구원받고 싶지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에서는 아내나 남편이나 어머니 아빠를 볼 수 없습니다. 그곳은 불에 타는 곳이기 하지만 짙은 흑암이 있는 어둠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둠의 장소입니다. 죽어서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며 댄 핑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저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알게 되고, 진정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땅이나 소나 아내나 친구나 가족이나 재물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날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플로리다에서 음행을 일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음행 중에 낳은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녀는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딸을 교회에 나오게 하면 총으로 저를 쏘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녀의 딸을 망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녀짓이나 하며 사는 여자가 자신의 딸이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결심한 것은 인생을 망친 것이며 제가 그렇게 되도록 했기 때문에 저를 총으로 쏘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 인생을 “망치는 것” 이라면 저는 더 많은 딸들의 인생을 “망치기” 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엄마나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영원한 복을 던져버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을 저버리는 것은 비참하고 어리석고 가련한 짓입니다. 당신의 혼을 위해 예수

님께서 해 주신 일을 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저를 위해 가시관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위해 못을 박도록 손을 내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찢린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성적이라면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사람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를 비웃고 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저를 잡고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다음날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 나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줘.” 제가 예수님께 믿을 때 친구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 친구들을 참된 위로자에게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중독으로 살아가다 연락이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예수

님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친구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줄 수 없었을 겁니다.

#### 4.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초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매 그때에 집 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22-24절)

여기서 “억지로라도” 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으로,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초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면 “억지로라도” 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라도”

당신은 “억지로라도” 라는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기 전에, 당신은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회식자리에 끌려가서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 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한 잔만 마셔봐. 사장님이 주시는 건데 거절하면 쓰나. 딱 한잔만 마셔봐.” 이게 바로 “억지로라도”의 의미입니다.

니다.

가기 싫은 곳에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간 적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강요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억지로 무엇인가를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을 하고, 가기 싫은 곳을 가고, 먹기 싫은 것을 먹은 적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일 뿐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여도록 강권해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거절해도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데려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강권하십시오.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선물을 사주고 돈을 쓰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아끼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러한 것들은 모두 사라져 버릴 거지만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인간의 혼은 어딘가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강권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게 하거나 사게 하기 위해 강권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 강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 전하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일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해 버립니까? 강권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십시오. 강권해서라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힘과 생각과 영향력을 모두 동원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영원한 혼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기를 원하면 강권해서라도 참된 복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강권해서라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거절한다면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알려줬는데 거절한다면 다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세요. 선물을 사주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세요. 그의 집에 방문하고 초대를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강권하세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기 원합니다. 그분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열리는 날 저를 아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초대해 줘서 정말 고마워. 예수님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계속 거절했는데도 강권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거리에서 외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보다 소



중한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일인지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 날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초대에 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불구자고 다리를 저는 눈먼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초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구원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이러한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 14. 죽어가는 강도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의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때는 여섯 시쯤이며 어둠이 아홉 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눅 23:39-45)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의 사역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칼빈주의라는 신학체계를 반대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1500년대에 살았던 칼빈이라는 사람의 사상을 따라 이름 붙여진 철학 체계입니다. 칼빈의 시대는 로마 천주교가 유럽 대륙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존 칼빈은 로마 천주교나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어했습니다. 칼빈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관하에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성경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지만(딤후 2:4)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눅 16:19-31).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와는 거리가 멍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 즉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계 20:11-15, 21:8).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누군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 4:8). 저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도 전혀 주지 않으신 채 무조건적으로 지옥에 보내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칼빈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일 뿐,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는 자기도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칼빈주의자는 누군가는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이기 때문에 저는 칼빈주의를 거부합니다.

칼빈은 교황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칼빈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칼빈과 대칭점에 있던 사람은 아르미니우스였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알미니안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칼빈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받는 것이며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자유의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칼빈과는 또 다른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누구나 칼빈주의자가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학적 성향을 묻고자 할 때 칼빈주의자인지, 혹은 알미니안주의자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칼빈이 옳은 부분에서는 칼빈을 지지하지만 그가 틀린 부분에서는 그를 반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르미니우스가 옳은 곳에서는 그를 지지하지만 그가 틀린 곳에서는 그를 반대합니다.

이 세상에 항상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존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따르건 자유이지만, 당신이

따르는 대상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성경을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을 때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셔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저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는 게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비록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었지만,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면 저는 아무리 열심히 믿고 받아들여도 영영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본문을 통해 성경에서 나온 가장 놀라운 장면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편에는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처음에는 강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마 27:44) 마가복음 15장에서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막 15:27-32).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막 15:31-32)

예수님의 양 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모두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해 주신 일곱 가지 일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도에게만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죽어가는 강도는 자신이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3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의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눅 23:39-40)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에 대한 사실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찾아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고 지옥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음의 정죄를 받았으며 구원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설교를 하거나 지옥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대한 이야

기를 먼저 합니다. 정죄와 사망과 지옥을 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정죄를 받았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설교가 바로 회개하라는 설교였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죄와 심판과 정죄와 지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돕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방언이 터지게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요 16:8)

성령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그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밤새도록 얘기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성



령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님으로 인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노아는 술에 취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모세는 살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서는 제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했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 2. 죽어가는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해 주신 첫째 일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 정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40절을 다시 보면 죽어가는 강도는 다른 강도에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잠 9:10)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이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잠 16:6)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그가 죄인이며 정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며, 자신이 정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 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눅 12:4-5)

### 3. 죽어가는 강도는 자신이 공정하게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깨닫게 해 주신 셋째 것은 무엇일까요? 4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그가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죄 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죄 받은 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죄 받은 것이 공정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게 정당하고 공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모두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면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죄의 삯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6:23).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죄의 삯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며 그 삯으로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해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심한 죄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죽음과 지옥으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알게 하십니다.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자신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정당한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강도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하며 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하며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받는 정죄가 정당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며 그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며 정죄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 빛을 싫어하거나 피하고 계속 어둠 속에 거한 게 아니라 그 빛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 **4. 죽어가는 강도는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41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죽어가는 강도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자신이 죄인이며 정죄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후에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결코 사람을 자신이 정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상태로 두고 가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자신이 정죄 받았으며 그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인이여, 여기 죄를 모르는 분이 계시느니라. 정죄 받은 혼이여, 여기 정죄 받지 않은 분이 계시느니라. 버림받은 자여, 여기 버림받지 않은 분이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면서 그가 정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십자가로 데려가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단 하나의 죄도 지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단 하나의 율법 조항도 어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단 한번도 불의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강도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세 개의 십자가 중 가운데 달린 분은 단 하나의 죄도 없는 분이시며 평생 단 한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공부를 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주일학교에서

배웠을까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계시해주셨기 때문일까요?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성령님께서서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 5. 죽어가는 강도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강도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0:9).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지금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구원해주시는 데에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든, 대환란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든 상관없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와 세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죄인을 구원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세대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인간을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강도는 단순히 “예수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 다. “랍비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 다. “선생님이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 다. “4대 성인 중 한 분이시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린 분이 단순히 랍비 나 선생이나 성인이 아닌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강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는 말씀이 기록되기도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해 주셨습니다(요 1:12). 침례를 받으면 구원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해주시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 강도는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해주시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침례를 받을 수도 없었고, 선행을 할 수도 없었고, 교회에 다닐 수도 없었고, 십일조를 바칠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던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은 바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연의 일치” 입니까?

죽어가던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 2:8-9)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정죄 아래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죽기 몇 시간 전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었고 지은 죄를 지워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매우 쉽게 해 놓으셨다는 사실로 인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이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죽어가는 강도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만일 이 강도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만일 이 강도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만일 이 강도가 예수님이 단지 인간 이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분이 다시 살아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이 사람에게 계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옆에 십자가에 달린 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분이시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영생을 나눠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지금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분이시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왕국의 왕이시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자 이 강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자신이 받은 정죄가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 강도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롬 10:9) 라는 말씀이 기록되기도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

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이천 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경우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신약성경을 단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죽으시지도, 묻히시지도,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마치 그분께서 이미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었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로 믿었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 편에 앉으신 분께서 철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강도는 로마 군인들에게 맞아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믿었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죽어가던 강도는 문서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많은 책을 보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저보다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변개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좋은 책들도 있습니다. 교제를 나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소유했던 것과 같은 맑고 투명한 순수한 믿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 훨씬 큰 칭찬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도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얼굴을 맞으셔서 통통 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수염을 뜯기셔서 피로 얼룩진 상태였습니다. 등은 채찍에 맞아서 깊게 고통이 난 것과 같았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도 처참해서 인간 이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벌레의 모습과도 같았다고 합니다(시 22:6).

그런데 이 강도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 7. 죽어가는 강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이 강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강도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죄로 인해 버림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일하시자 그는 자신이 죄인이고 버림받았으며 정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알게 되자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잊으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 결코 이 사람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정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 없는 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그분의 일부가 되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죽어가는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죄 받고 죽어가던 강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독자 중에도 이러한 사실을 아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린 분이 자신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분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이고, 정죄를 받았으며, 죽어야만 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안다면, 당신이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오늘밤 잠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강도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 것처럼 당신과 저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 4:4)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한때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진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43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르노니” 라는 말 다음에 쉼표가 나옵니다. 여호와와 증인들의 성경에는 “오늘”이라는 단어 뒤로 쉼표를 옮겼습니다(신세계역성경에는 43절이 “그러자 그분은 그에게 ‘진실로 내가 오늘 당신에게 말하는데,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되어 있음-역주).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같은 날, 예수님과 강도는 낙원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으면 혼이 잠자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

면 죽은 그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하나가 수많은 이단교리를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립니다.

저는 죽으면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지도 않습니다. 연옥에 가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예수님께 서는 단 한번도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어가던 강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주면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하지 않게 해 주면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뤄주면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나서 그분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게 돼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게 돼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까?

## 15. 도피 도시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기 20장을 중심으로 도피 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서 도피하게 할지니라.”(민 35:9-11)

도피 도시에 대한 말씀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인 살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즉 과실치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인과 과실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죽일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피 도시에 대한 말씀은 다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법체계에서도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여섯 도시를 도피 도시로 만들되 세 도시는 요르단 이편에서 주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 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이 여섯 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12-17절)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독자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분이 있을지 모르니 사형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부분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16-17절)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

드시 죽일 것이니라.”(18절) 여기서도 분명합니다. 성경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문제라고 합니다. 즉,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 총기는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기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는 총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쇠나 돌이나 나무로도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총과 같은 무기가 문제라고 합니다. 총과 같은 무기가 없으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천년간 사람들은 쇠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무기에 맞아 죽었습니다. 실제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쇠로 만든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총을 발명하기 수천년 전에도 여전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총이나 칼이나 야구방망이나 핵폭탄이 아닙니다. 살인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문제는 살인자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살인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규제를 해야 할 것은 총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바꾸고 규제를 한다 해도 살인 사건은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19절) 이것은 매우 주목해 볼 만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살인자의 생사에 대한 결정을 판사나 배심원이 하지 말고 피해자의 가족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미워하는 까닭에 그를 밀쳐 죽이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적개심으로 인하여 손

으로 쳐서 죽이면 그를 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살인자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 것이니라.”(20-21절)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은 쇠나 나무나 돌로 사람을 죽일 때만 살인자라고 하지 않고 “손으로 쳐서” 죽여도 살인자라고 합니다.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주먹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면 손으로 사람을 쳐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손도 규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로 차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발도 규제해야 합니다. 박치기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도 규제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총기규제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적개심을 품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 있지 않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지거나 그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으나 그가 그의 원수도 아니요, 그를 해치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면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재판하여”(22-24절)

성경은 명백하게 사전에 예비하거나 죽일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살인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 내고 그의 도피 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 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

피 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 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으리니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도피 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와 같이 이것들이 너희 대대로 너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재판의 법규가 될지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증언하여 그가 죽게 하지 말지니라. 또 너희는 죽을죄를 진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25-31절)

31절에서는 어떠한 배상도 받지 말고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금도 받지 말고 징역 20년이나, 30년이나, 100년이나, 무기징역도 선고하지 말고 오직 사형을 선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석금을 내거나 아무리 많은 햇수를 감옥에서 살게 할지라도 그것은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처형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살인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자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유일한 성경적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자기의 도피 도시로 도피한 자를 위해 배상을 받음으로 그가 돌아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

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러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32-34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살인자를 사형시키지 않고는 땅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 도시들을 너희를 위해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그 도피 도시들은 피의 원수를 갚는 자로부터 너희를 지켜 줄 피난처니라. 그 도시들 중의 하나로 도망하는 자는 그 도시의 문어귀에 서서 그 도시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밝히 말할 것이요, 그들은 도시 안으로 자기들에게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처소를 주어 그가 자기들 가운데 거하게 하고 피의 원수를 갚는 자가 그를 추격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지니 이는 그가 전에 자기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웃을 쳤기 때문이라. 사람을 죽인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시에 거하다가 그 뒤에 자기의 도시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랴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고 또 요르단 저편 곧 동쪽으로 여리고 옆에는 르우벤 지파에서 평야 위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하였

더라.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을 위하여 지정한 도시들이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경우 거기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었더라.”(수 20:1-9)

성경은 제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경우에는 도피 도시로 도망가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피 도시 안에 거하는 한 저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피 도시 안에 거하는 한 저는 제가 실수로 죽인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피의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피의 보복자인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어떤 보복이나 심판도 받지 않게 됩니다.

## 1.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도피 도시와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훈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제 얘기에 동의할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알건 모르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

다.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당신과 저의 잘못과, 당신과 저의 죄와, 당신과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면서 살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며, 우리 각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책임은 당신과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습시다. 비록 제가 죄를 지고, 저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저는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며 죄를 짓지는 않았습시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는 했지만 저는 살인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저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살인범은 아니지만 과실치사범입니다. 왜냐하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도피 도시가 필요합니다.

## 2. 도피 도시는 모두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피 도시를 통해 배운 첫째 영적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실치사범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 도피 도시는 모두 언덕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 도시 중 어떤 것도 골짜기나 평지나 사막에 있지 않았습시다. 도피 도시들은 모두 높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도피 도시를 만들라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도피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골

짜기나, 사막이나, 동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보리 산 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높은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높이 들려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돌에 맞아 죽지 않으셨습니다. 총에 맞아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칼로 목을 베는 게 가장 일반적인 처형방법이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린 채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도피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달려가 피할 수 있는 도피 도시이기 때문에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지가 아닌 갈보리 산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밑으로 달려와 피할 수 있습니다.

### 3. 도피 도시는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섯 개의 도피 도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섯 개의 천막이 아니라 여섯 개의 도시입니다. 여섯 개의 집이 아니라 여섯 개의 도시입니다. 여섯 개의 방이나 마을이나 정류장이 아니라 여섯 개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섯 개의 천막이나 집이나 정류장이나 마을이 아닌 여섯 개의 도피 도시를 예비하셨는지 아십니까? ‘도피하는 자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도피 도시가 아닌 “도피 천막”이었다면, 그 천막은 도피하는 사람들로 금방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피 가옥”이나 심지어 “도피 마을”이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충분히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피 도시를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저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 4. 피의 보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분의 가족이 저에게 피의 보복을 하기 위해 저를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저에게 피의 보복을 하기 위해 저를 쫓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제가 도피 도시를 발견하지 못하면, 제가 안전지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피 도시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 자신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쫓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눈을 들어 보니 갈보리 언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도피 도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문을 여시고 “미안하지만 칼빈이 한 말이 옳

았구나. 예정되지 않은 자를 위한 장소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 흘려진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 도피 도시가 예약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 도시로 피한 사람은, 그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모두 도피 도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도피 천막이나 도피 가옥이 아닌 도피 도시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피 도시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도피 도시로 가는 길은 폭이 17미터(57피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트럭이나 기차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보나 나귀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폭이 17미터나 되는 길을 만들었을까요? 어느 누구라도 이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길이 좁아서 누군가 막고 있으면 지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도피 도시로 가는 길은 폭이 넓었을 뿐만 아니라 돌이나 바위나 나무 같은 장애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 길이 다른 길과 만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도피 도시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방향을 잘못 잡아서 도피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로 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건, 누구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도피 도시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피 도시는 높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넓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즉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전에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갑자기 이해하게 됩니다.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설교가 갑자기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던 예배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도피 도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성령님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 도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게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수천 만부의 전도지를 나눠준다 해도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서는 어디로 피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참된 도피 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 5. 도피 도시들의 명칭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 개의 도피 도시들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게데스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도피 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죄인들로부터는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세겔은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9장에서 정권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면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만 초대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의 사귄과 교제로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베셀은 성채나 요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요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라못은 높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골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 도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도피 도시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찾았고, 우리를 메고 갈 어깨를 찾았고, 참된 교제와 사귄을 찾았고, 요새를 찾았고, 높임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피 도시를

스스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도피 도시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참된 구원자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 6. 도피 도시들은 흠이 있는 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피 도시들은 흠이 있는 땅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피하는 자가 그곳에 이르러 흠을 만지는 순간 안전하게 됩니다. 도피하는 사람은 도피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도시 안에 있는 집에 거하지 않아도, 짐을 풀지 않아도 일단 도피 도시 안으로 들어 오면 안전합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확히 구원받는 순간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인지 영접기도를 하려고만 해도 구원받는 것인지를 두고 논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구원받는지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순간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죄와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데 어떤 제약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 무엇을 해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안전하게 됩니다. 걸어서 오거나, 말을 타고 오거나, 낙타를 타고 오거나, 자동차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도피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독자 중에는 구원받을 때 영접기도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을 때 운 사람도 있고 웃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려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구원받아서 그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구원받은 장소와 시기와 방법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7. 과실치사범은 도피 도시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안전합니다

과실치사범은 도피 도시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안전합니다. 아무도 그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피의 보복자에게 내어 줄 수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를 도피 도시에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저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저를 도피 도시에서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여기서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저는 도피 도시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습니다. 저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다시는 죽지 않으

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도피 도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 도시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도피 도시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로 인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저로 인해 죽으신 분이 저의 도피처가 되신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제가, 저의 죄가 죽인 바로 그분이 저의 도피 도시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 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써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닦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히 6:17-20)

예수님께서 저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저는 그분께로 도피한 피난민입니다. 저는 제가 살던 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저의 과거를 뒤로 하고 도망쳤습니다. 저의 옛 친구들을 그대로 남겨 두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둘러서 도피 도시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피 도시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자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

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사람이 누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범죄자입니다. 저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곳으로 도망쳐왔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천 년 전에 갈보리 동산 위에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저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지만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발 제가 도피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도피 도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묻습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나 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여기서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대제사장은 언제까지 사실까요?” “이리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분이 있습니다.” 황금으로 된 길을 걸어가다 보니 성전이 나왔습니다.

그 성전에는 기도를 하고 계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더 이상 휘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돌아서서 저를 보시는데, 놀라운 점은, 그분을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분 같았습니다. 그분이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 구멍 난 손을



잡으면서 저는 제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는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계 2:16) “너를 환영한다. 너는 여기서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느니라.”

구원받은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참된 도피 도시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마 27:25)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동산 위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간구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눅 23:34)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간구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죄를 과실치사로 감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고의에서 실수로, 살인에서 과실치사로 낮춰달라고

간구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누구든지 도피 도시로 오는 사람은 받아주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감경해 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로 인해 우리는 살인범에서 과실치사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피 도시로 가기만 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간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도피 도시로 도망가도 거기서 끌려 나와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피의 보복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인범에서 과실치사범으로 죄를 가볍게 해 달라는 예수님의 간구로 인해 우리는 도피 도시로 도망가기만 하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참된 도피 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도피 도시가 되신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입니다. 이 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 16. 큰 흰 왕좌 심판

계시록 20장, 마태복음 12장, 열왕기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 성경이 큰 흰 왕좌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큰 흰 왕좌 심판석에 서지 않습니다. 큰 흰 왕좌 심판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 호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중 어느 누구도 그곳에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겠습니까?

이제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만일 당신이 이 땅 위에 있는 것 중 하나를 믿거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당신의 희망은 헛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것에 희망을 두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땅 자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땅이 사라지면 그 위에 있는 것들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하늘에 있는 것 중 하나를 믿거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당신의 희망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도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끝나는 때가 오면 하늘과 땅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그 때에는 큰 흰 왕좌와 그곳에 앉아 계신 분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참되고 유일한 희망은 큰 흰 왕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하늘에 있는 것들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큰 흰 왕좌에 앉아 계신 분만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을 그분께 두고 있습니까?

나는 침례교인이다, 감리교인이다, 장로교인이다, 천주교 신자다, 개신교인이다, 유대인이다, 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그분께 두고 있습니까? 나는 침례를 받았다, 성별된 삶을 산다, 성경 공부를 한다, 교회에 다닌다, 주일 성수를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신뢰를 두고 있으신가요?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큰 흰 왕좌 앞을 주목해 보세요. 거기서는 모든 교회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든 교단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신조도 사라졌고 종교도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교회 프로그램도 없고 신학 박사도 없고 심리학자도 없고 목주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분만이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12절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었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 세상과 하늘과 모든 것이 사라진 때에 오직 하나님과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사기꾼 같은 목사 앞에 서 있는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집사 앞에 서 있는데”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자신들보다 못한 위선자들 앞에 서 있는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실수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큰 흰 왕좌 심판대에서는 당신과 하나님만이 남아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심판 받는 것이 유쾌하지 않겠지만 인생을 결산하는 큰 심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

을 것입니다. 당신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죄를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구원받거나 거듭 나거나 회심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큰 흰 왕좌 앞에서는 이미 일어났던 일들, 되돌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심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현재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당신에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당신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그저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과거만 존재할 뿐입니다.

심판대 앞은 형벌을 협상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당신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치한다는 것은 당신이 산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과 100%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죄인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죄가 있다면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세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는지 누구와 친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을 받습니다.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을까요?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과 당신만의 관계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당신의 목사가 누구였는지도 상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은 누구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못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누구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당신만이 하나님과 마주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14절부터 보세요.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불 호수의 심판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세요? 불 호수의 심판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으로 내려가셨는지 아세요? 불 호수의 심판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불 호수의 심판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아세요? 왜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셨는지 아세요? 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불 호수의 심판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 호수의 심판으로부터 당신을 건져 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분과 만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당신은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을 보내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까? 당신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0장을 보세요. 다윗에게는 매우 현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온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세요.

“또 왕이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그것을 입혔더라. 그 왕좌에는 여섯 계단이 있었고 왕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글게 되어 있었으며 앉는 자리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서 있었더라. 또 거기에 사자 열두 마리가 그 여섯 계단의 이쪽과 저쪽에 섰는데 어떤 왕국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은 상아로 된 큰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왕좌에는 여섯 계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일곱째에 왕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일곱은 완벽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왕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글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시록 4장과 비교해 보면, 계시록 4장에서는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솔로몬의 왕좌에 사자 열 두 마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스물네 장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왕좌가 주님께서 앉아 계신 큰 흰 왕좌의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보세요.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께서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사람들은 흥미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따분한 설교보다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원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



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날을 사는 당신에게 표적이나 기적이나 쇼를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매우 기본적이고 쉬운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스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죄로 인해 죽으신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삼 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채,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부자가 되게 해 주시고 당신의 병이 낫고 이 세상에서 만사亨통하게 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해 주면 그때 가서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심판대 앞에서는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 날 심판대 앞에서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평할 겁니다. “아! 나는 복음을 제대로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일 한 적도 있고 교회에

다녀 본 적도 있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아라.”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서 물으실 겁니다. “여기 혹시 니느웨에서 살던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대답할 겁니다. “예, 주님. 제가 니느웨 출신입니다.” “잠깐 이 앞으로 나와 보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나오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예, 그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서 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냈었느니라. 그가 뭐라고 설교했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 나온 복음을 전했느냐?”

“로마서라니요, 그런 건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가 신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신약 성경이라니요? 그런 건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럼 그가 거리에서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전했느냐?”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래서 너는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였느냐?”

“당연히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선 사람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근처에 교회도 있었고 매주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도 있었고 성경도 있었고 게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됐는데 왜 믿지 않은 것이

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말이나?”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던 니스웨 사람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전해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건가요?”

주님께서서는 니스웨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시겠죠. “복음을 여러 번 들었고 원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도 복음을 거절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면 니스웨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그는 지옥에 가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했으니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거절했다면 절대로 구원받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니스웨 사람에게 동의하시며 심판대 앞에 있던 사람을 불 호수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온 세바의 여왕은 낙타를 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현명한 사람으로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여왕의 몸으로 낙타를 타고 직접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 시내 광야를 지나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심판 때에 그녀가 나와서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교회가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알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등한히 하고 복음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을,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솔로몬을 찾아갔던 남방 여왕이 정죄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려고 낙타를 타고 대륙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도 그걸 거절했다구요? 당신은 절대로 지옥을 피할 수 없겠네요.”

흰 왕좌 심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

한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데 그 이유는 살인을 해서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도 아니고 간음을 해서도 아니고 도둑질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취 주신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대적해서 증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예, 주님.”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했느냐?” “예, 주님.” “저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해 주었느냐?” “예, 주님.”

이것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무슨 선행을 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을 받아들였는가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16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것을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 호수에서 영원을 보내는 것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

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빛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큰 흰 왕좌 심판대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누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미 정죄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마 7:22)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 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농담이나 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마귀를 쫓기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팔뚝에 마귀 문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귀걸이를 하는 사탄 숭배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마귀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감옥에도 방문하고 불우이웃도 돕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세요? 23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주님께서서는 이들이 좋은 일을 한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어느 정도 선한 삶을 산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인가요?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아닌 자신들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들은 “무엇무엇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은 꽤나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경고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사는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지나쁜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 14장을 보세요.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된 책입니다. 욥기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

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던져지고 나중에는 불 호수에서 영원을 보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성경은 히브리서 9:27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과 약속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잡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심판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어떤 자들은 죽음 이후에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최후의 심판대에 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후에 큰 흰 왕좌 심판대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6은 첫째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 년 후에는 주님을 거부해서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 죽어서 지옥에 있던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큰 흰 왕좌 심판대에서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온 인생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냐? 라디오에서 복음이 나올 때 듣기 싫다고 하면서 꺼 버리지 않았느냐?”

“믿으려고 해도 기독교인들이 다 위선자들이라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냐? 직장에 함께 근무했던 좋은 동료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답을 하시며 회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답을 하며 회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왜 하필 저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하지만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답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당신은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서는 당신에게 왜 믿지 않았는지 물으실 것이고 당신은 주님께 대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서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문에 답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계셨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이상한 꿈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여보, 무서운 꿈을 꿴어요. 저 사람이 큰 흰 왕좌 위에 앉아 있고 당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저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꿈이었어요. 저 사람을 재판하지 말고 그냥 보내세요. 저 사람이 당신에게 질문을 하면 당신은 대답해야만 했어요. 제발 저 사람을 그냥 보내세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몸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 그 몸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된 존재이고 당신을 창조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느 누구 앞에서 당신의 인생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며 회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어서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회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지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당신이 사는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능도 주셨다면, 당신이 무엇을 했으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듣고 싶어하실 것이며 그럴 권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해명하며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어떻게 인생을 사용했는지 들을 권리가 있으시고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16절도 보세요.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독자 중에 구원 받은 사람이 있다면 처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신 날을 기억해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짓던 죄들을 거듭나고 나서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끊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 걸음을 세고 계십니다. 17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내 범죄를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당신의 모든 죄악을 자루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담은 자루를 어깨에 매고 큰 흰 왕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누구도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곳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죄의 자루를 가지고 갈보리로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엇 무엇을 했고, 무엇 무엇을 했으며...” 하면서 그 위에 앉으신 분께 변명하느라 진땀을 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명을 해 봤자 어깨에는 여전히 큼지막한 죄의 자루가 걸쳐 있을 것이며 그 죄의 자루가 있는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큰 흰 왕좌 심판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

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고도 계속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팔이 분명히 절단되어 이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끝이 아프다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체에 대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죄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죄 문제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 맡긴 죄는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18절을 보세요. “산은 무너져 반드시 없어지며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께서 휩쓸어 가시며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큰 흰 왕좌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사람만이 남게 됩니다.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선 사람에게는 더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는 사람들이 신뢰하던 거짓 소망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종교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영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도 그것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장례식도 관도 무덤도 다 실재가 아니라는 것이지

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망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재물과 과학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치료책이 나오고 모든 질병을 정복할 정도로 과학 기술이 발달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풍부한 재물과 진보된 과학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에이즈와 암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을 소망합니다. 인류는 누군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수세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아무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소망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나라와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옥이 없기를 바랄 뿐인지 몰라도 그것은 죄를 짓고도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이러한 거짓 소망은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 모두 산산히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 호수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생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세상에서 두 번 살고 싶어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것인가요? 저 같으면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이 세상에서 다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환생이라는 거짓된 소망을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 모두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거짓된 소망을 가진 자들도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 앞에서 그분의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선을 행해야 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선을 행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도 없고 최후의 심판도 없다면 그저 즐기고 마음 가는대로 살면 그만일 것입니다. 기말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암기하고 공부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된 소망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마음을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심판을 대충 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초대하실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노만 빈센트 필이나 로버트 솔러 같은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농담이었어.” 라고 하실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진데 이러한 말보다 더 신성모독적인 것은 없습니다. 죄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질 필요도 없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은 없을 것이라는 거짓된 소망은 큰 흰 왕좌 심판대에서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내쫓으시오니” 주님의 판결은 영원하고 주님의 형벌도 영원합니다. 불 호수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며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예, 분명히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판결을 번복하고 죄 있는 사람을 그냥 풀어 주는 판사를 자비롭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는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곳에 없을 것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별로 즐거울 것 같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기 14장에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겪었던 이전 일들이 모두 마음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되”(욥 14:21)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지옥에 가면 자기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오직 그에게 붙어 있는 살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 니이다, 하더라.”(욥 14:22)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한 몸을 입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죽고 내일 휴거가 일어난다면 저의 혼은 다시 이 몸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몸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죽었던 이 몸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서는 이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죽는다면 몸은 사람들이 땅에 묻고 혼은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의와 정의로 천 년간을 다스리신 후에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꺼내시고 당신의 몸은 무덤으로부터 불러모아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형벌을 집행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듣게 된 후에 당신은 몸을 입은 채 산채로 불 호수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살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것이라는 성경의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었고, 왜 부활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요 3:17)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행 16:3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서서 정죄 받고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계 22:12)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살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서게 될 것인데, 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살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치러졌고 저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큰 흰 왕좌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한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부 록

# 부록1: 가장 중요한 질문

□ Dennis Costella, Matt Costella

##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 8:36)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삶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래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막 8:36-37) 당신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영원을 보내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인생은 의문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반드시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으며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감정을 신뢰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교회나 종교를 믿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나 사후세계나 영적인 것에 관해 다른 누군가의 말을 믿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붙들고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다음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 중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와 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들”(엡 2:3)**이었으며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엡 2:1)**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우리는 모두 완벽한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현재 상태 그대로 당장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또한 성경은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27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로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어린양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주님의 거룩하신 면전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는 어디서 영원을 보내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15은 이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이 있는 실존 장소입니다. 성경은 불 호수에서 영원히 고통 당하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롬 6:23)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말입니다.

##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죽음 이후에는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통해 죄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 죄보다 많은 선을 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악행보다는 선행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들(침례나 세례, 고해성사, 주의 만찬 등)을 하면 죄 문제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은 모두 착각일 뿐이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결코 피하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딤후 3:5)

사실 우리는 아무런 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 64:6)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종교적이고 영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살면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우리 자신의 내

면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없앨 수도 없으며 온전히 거룩한 의로 우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와 그 형벌로부터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롬 5:6)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힘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고 있고 희망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혜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로마서 5:8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

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 2:24)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롬 4:25)

짚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 두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와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의 주님 위에 놓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요 19:30) 라고 울부짚으셨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선물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 놀라운 해결책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야만 그분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원하면 자신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인이 치러야 할 값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될



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행 10:43) 이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죄를 모두 용서 받고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약속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롬 5:1-2)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에 2:8-9)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

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행 16:31)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 3:16-18)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 4:5)

## 즉각적인 기회

독자여,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를 모두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의로는 정죄만 당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당신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고후 5:21).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로마서 3:26)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았거나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11-13은, 믿는 사람은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과 자신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실들도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증보하심을 보전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 7:25)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 10:28)

성경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 4:30)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봉인되었으므로 영원히 안전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머리로만 받아

들이지 말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선행이나 성사나 종교의식이나 교회 출석이나 도덕이나 침례나 세례나 영성 체험이나 다른 무엇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죽으면 끝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같보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이러한 초청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행 20:21)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

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거나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죄 가운데 완전히 버림받았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성경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받고 씻음 받으며 성령님께서는 당신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계 22:17)

## 부록2: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이 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글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관련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시고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11에 묘사된 사람들 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 하나님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사 6:3, 57:1, 벰전 1:15, 계 4:8).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된 것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십니다(사 59:2, 시 24:3-4, 사 6:3-5). 성경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히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14:6, 딤후전 2:3-6).

###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시 14:1-3, 롬 3:10-18, 23, 사 53:6, 시

51:5, 왕상 8:46). 당신의 마음도 악하고 사악합니다(렘 17:9-10, 막 7:20-23, 마 7:11). 그러므로 당신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롬 3:19). 그래서 현재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상태이며 그분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살 후 1:8-9, 마 25:41, 46, 막 9:42-48, 계 20:11-15, 21:8).

##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포함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요 3:17, 마 1:21-23, 눅 19:10, 딤후 1:15).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1:1, 사 7:14, 9:6, 미 5:2, 딤후 2:13)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는데(요 1:3, 골 1:13-16)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당신을 대신해서, 저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저와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사 53장, 롬 5:6-8, 고전 15:3, 고후 5:21, 갈 1:4, 벧전 2:24, 3:18, 요일 2:2, 3:16, 4:10).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저를 대신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에 만족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고전 15:4-20, 롬 4:25). 또한 이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주장하신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롬 1:4).

##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알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책임입니다(행 16:30-31, 요 3:16, 18, 36).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요 6:35-37)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요 1:12, 롬 6:23).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1. 주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행 4:12, 요 10:9, 14:6).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2.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살전 4:14, 고전 15:3-4, 롬 10:9).
3.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히 7:25, 사 59:1, 마 19:24-26).
4.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요 6:37, 딤후 2:4).
5.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요 3:16).



## 당신은 다음의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 당신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사 64:6, 엡 2:9, 딤후 3:5).
2.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롬 3:20, 갈 2:16, 약 2:10).
3.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엡 2:8-9, 행 16:31).

당신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엡 2:4-9, 딤후 3:4-7).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 무엇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딤후 1:2, 히 6:18),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히 13:8),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 기쁨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28, 요한복음 1:12, 3:16, 3:18, 3:36, 5:24, 6:35, 6:37, 6:47, 10:9, 11:25, 사도행전 10:43, 로마서 10:9, 10:13, 요한일서 5:11-12

## 구원받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벧후 3:18).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해야 합니다.

1.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마 28:19-20, 행 10:48, 2:38),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고후 5:14-17, 롬 6:3-11, 갈 2:20).
2.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합니다(벧전 2:2, 마 4:4, 시 119:97).
3.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히 4:16, 살전 5:17, 눅 18:1).
4.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신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행 2:42, 히 10:25).
5. 매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생각으로 짓는 죄나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분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요일 1:8-2:2, 요일 1:9, 시 51:3-6, 시 32:3-6, 잠 28:13).
6.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시 107:2, 마 10:32, 롬 10:9-10).
7. 행실과 입술과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행 1:8, 사 43:10-12). 당신이 사는 방식과 인생과 말을 통해 사람들

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빌 2:15-16, 골 3:17, 벧전 3:15, 골 4:5-6).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문서사역 후원 안내

“그러나 진리의 성경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단 10:21a) 천사가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도서출판 진리의성경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책들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근거하면서 킹제임스성경을 전혀 비평하지 않는 책들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책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전제로 저술한 책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는 전제로 만든 책들을 출간하고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성도들을 세워주는 건전한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도서 구매가 어려운 교회와 개인에게 무상으로 도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서사역 후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무상으로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진리의성경을 통해 사업이 아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금전적인 이윤보다는 구원받은 혼과 영적 성장이 남기를 원합니다. 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대표  
이우진 목사

## 문서사역 후원 방법

- 국민은행 384702-04-212299 이우진(문서사역)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http://cafe.naver.com/bbckjb>)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게시판을 참고 하십시오.
- 후원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후원금액을 문자(010-2322-1611)나 메일([kjv74@hanmail.net](mailto:kjv74@hanmail.net) 또는 [kjv74@naver.com](mailto:kjv74@naver.com))로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해당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원저자 : James W. Knox**

제임스 닉스 목사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닉스 목사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 주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지금까지 600만 개의 도서와 테이프 자료들을 전 세계에 보급해 왔습니다. 그는 30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문서사역과 테이프 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nox.org>

### **\* 편역자 : 이우진**

이우진 목사는 1974년 4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여의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펜사콜라성경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균관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1990년 7월 중순 호주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1994년부터 문서사역을, 그리고 1997년부터 교회와 신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우진 목사는 펜사콜라성경신학원과 킹제임스성경신학원에서 10여년에 걸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월간 강단의거성과 도서출판 킹제임스에서 편집장으로, 그리고 진리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으며, 40여 권의 책을 번역하거나 저술했습니다. 그는 2007년에 도서출판 진리의성경을, 그리고 2014년에 분당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http://cafe.naver.com/bbckjb>

